학교폭력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무 일 없다고, 모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 채로 방치될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하며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신고전화
Weekly 공감

2012.02.15 NO.146
gonggam.korea.kr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3.26~27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5.12~8.12

# 서민에게 필요한 정책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Beyond Security Towards Peace www.seoulnss.go.kr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 코리아가 앞장섭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평화서밋**입니다.
2012년 3월 26 ~ 27일 **세계 50여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서울에 모입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일자리 창출이 민생안정의 길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 교수
동서문제연구원장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로 설정했다. 서민경제의 체감온도가 실제 한파처럼 추운 이때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처사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정부와 협력하여 고용 창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을 육성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된 인재들이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경쟁력을 축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선순환의 역학'이 가능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복지'라는 키워드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민생안정과 연계하여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인재들이 대기업 선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강소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참맛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정주영 회장, 혁신으로 세계에 경종을 울린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마크 주커버그 같은 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소개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다.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독일의 강소기업들이 처음부터 '히든챔피언'이었던 것은 아니다. 인재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강소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참맛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용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업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도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원활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Contents

146호 2012.02.15 통권 247호

**표지 이야기** | 이른 아침 일어나 마트 문을 엽니다. 분주하게 물건들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습니다. 폐점 위기에 놓였던 동네 슈퍼는 어느덧 단골만 2천명이랍니다.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덕분에 인생역전 했다"는 안산 싱싱할인마트 서승자 사장. 절박한 순간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건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사진·이경민 기자

기획특집

## 꿈과 열정을 살려준 따뜻한 맞춤형 정책

정책의 성과는 때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 수치로는 도무지 표현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법이다. 경제적으로는 크지 않은 도움이더라도 그 의미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꾸고 소상공인들이 주눅들지 않는 사회, 노인들이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재기의 힘을 얻는 세상을 위한, 화려하지 않지만 사회의 온기를 조금 더 올리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31

16

44



56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2.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를 읽고

###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되길

145호 '고졸채용 확산…열린 고용사회 성큼'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최근 공기업을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고졸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력과 무관하게 실력이 뚜렷한 인물이 승진하는 사회가 바로 '공정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졸채용 확대를 계기로 학벌과 무관한 능력 위주의 고용사회가 하루빨리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밖에 취약 계층과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남이(48·회사원·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 '다른 길' 권하는 방황의 기술

평소 '책 읽어주는 남자'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책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145호 〈방황의 기술〉이라는 책은 '위로'와 '공감'이라는 이 시대의 키워드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위기와 높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불안한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한 통의 위로 편지 같았습니다. 방황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담담하게 전하는 이 책. 저처럼 새로운 모색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욱 (28·대학생·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 국민들의 안전 보호막 'SOS 국민안심서비스'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끔찍한 성범죄 사건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145호에서 'SOS 국민안심서비스' 기사는 희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위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SOS'나 '112앱' 등의 이용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장명화 (41·주부·경남 양산시 소주동)

### 미리 보는 여수세계박람회…성공 빌어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제 고향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입니다. 10여 년 전 개최지 선정 과정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개최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참 시간이 빠르군요. 145호 여수세계박람회 중점기획은 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주어 참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특히 주요 전시관과 특징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관람객 입장에서 친절하게 할인 혜택 방법도 알려주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은 (26·회사원·광주시 농성동)

## 독자 인터뷰

### "유익한 생활정보 많아… 틈새기사 많이 다뤄줬으면"

박정언 (19·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정언씨는 올해 연세대 테크노아트학부에 진학하는 새내기 대학생이다. 어릴 때부터 신문을 꼼꼼하게 챙겨 본 덕분에 미디어를 보는 안목이 높은 편이다. 그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좌우 이념대립이 심한 탓인지 신문들이 편향된 기획기사만 크게 싣고 생활정보는 빈약해 독자로서 불만이 많았다"며 "〈위클리 공감〉은 유익한 생활정보가 많아 열심히 읽고 있다"고 말했다.

**〈위클리 공감〉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가족 중에 위클리 공감을 아는 사람이 있어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게 됐습니다. '정부홍보잡지'라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겨봤는데 콘텐츠가 다양하고 충실해서 놀랐습니다. 특히 생활정보가 많아서 나중에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관심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45호에서 어떤 기사가 좋았나요.**

"여수엑스포 중점기획 기사가 유익했습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고 전남 여수라는 지방에서 열려서 그런지 여수엑스포는 국민적 관심을 덜 받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클리 공감〉이 여수엑스포를 심층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영후 병무청장 인터뷰 기사와 고금리 탈출 도와주는 '바꿔드림론' 기사도 정보가 많아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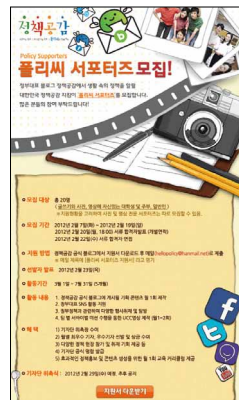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일자리 관련 정보를 고정란에 게재하면 어떨까요. 재테크성 경제기사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위클리 공감〉을 보면 국내기사가 대부분인데 해외 뉴스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매체에서 보지 못한 틈새기사도 많이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손수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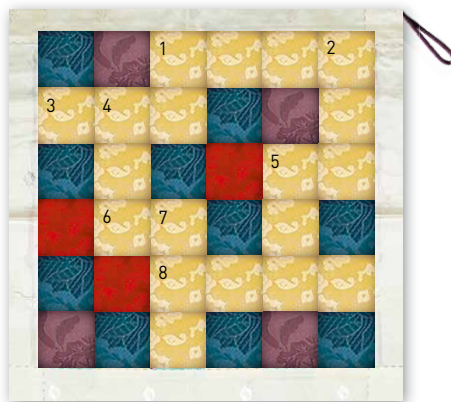
## 알림

### 정책공감에서 폴리씨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생활 속 정책을 알릴 '폴리씨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글과 사진, 영상에 자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폴리씨 서포터즈는 정책공감 공식 블로그에 게시될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부대표 SNS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이며 공식명함 발급, 기자단 위촉장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는 정책공감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한 뒤 대표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선발자 발표는 23일이고 기자단 위촉식은 29일에 진행된다.

**공모기간** | 2월 19일까지
**지원자격** | 글과 사진, 영상에 자신 있는 대학생·주부·일반인
**활동기간** | 3월 1일~7월 31일(5개월)
**활동내용** | 정책공감 공식 블로그에 실을 기획 콘텐츠 월 1회 제작, 정부대표 SNS 활동 지원, 정부정책 관련 행사 취재 및 탐방, 팀별 서바이벌 미션 수행을 통한 UCC 영상제작(월 1~2회)
**접수방법** | blog.daum.net/hellopolicy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ellopolicy@hanmail.net)에 접수 (메일 제목에 '폴리씨 서포터즈 지원서'라고 명기)
**문의** | **정책공감 공식 블로그 blog.daum.net/hellopolicy**

### 전기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절약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절전이 전력위기의 대응을 넘어 생활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절전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은 생활 속 절전 아이디어 및 절전 체험사례를 수기나 표어 및 포스터로 만드는 〈절전 스토리 나누기!〉와 전기절약 창작 UCC를 제작하는 〈절전 UCC가 쏜다!〉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공모기간** | 3월 31일까지
**참가자격** | 〈절전 스토리 나누기!〉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대학생 부문, 〈절전 UCC가 쏜다!〉는 누구나 참가 가능
**공모주제** | 절전이 생활문화로 확산될 수 있는 전기절약 아이디어 공모
**공모부문** | 〈절전 스토리 나누기!〉 〈절전 UCC가 쏜다!〉
**접수방법** | 절전 사이트(www.powersave.or.kr) 전기모으기 아이디어 공모전 코너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문의** | **공모전 콜센터 ☎1577-4923, 본선심사 접수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우편번호 448-994)**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29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마을로, 해군기지를 짓고 있죠.
3. 학용품과 사무용품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5.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우리 OO가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것이 없다."
6.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 이 이름을 딴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있죠.
8. 동네 가게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컨설팅 및 시설 등을 지원하여 탄탄한 소매점포로 거듭난 슈퍼마켓을 이렇게 부르죠.

**세 로**

1.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해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우는 것. "대책을 OO하다."
2. 서울시 중구에 있는 길 이름. 고구려 때 중국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이 장군의 성에서 유래됐죠.
4. 비축해놓았다가 내놓는 쌀.
5. 붓글씨로 일가를 이룬 예술가.
7. 솔방울, 송진, 송편…. 무슨 나무일까요?

**〈Weekly 공감〉 144호(1월 25일/2월 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생활기록부 4 정어리 5 느림보 6 기와 8 르네상스
**세로** 2 기쁨 3 부사어 4 정보 5 느와르 7 소스

**〈Weekly 공감〉 144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정현 · 강원도 속초시 교동
김창수 ·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박기풍 · 광주시 서구 유촌동
성우영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현지영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사우디 문화축제인 '자나드리아' 개막식에 참석한 후 압둘라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 전통적 혈맹·에너지 협력관계 재확인

## 이명박 대통령, 터키와 중동 3개국 순방… 활발한 외교 펼쳐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국가인 터키를 국빈방문해 전통적 혈맹차원을 뛰어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및 UAE 순방을 통해 중동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등 활발한 외교를 펼쳤다.

터키를 국빈방문한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터키 이스탄불 아딜레 술탄 궁전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한·터키 FTA'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UAE를 순방하고 11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터키를 국빈방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공식방문한 후 마지막으로 UAE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터키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05년 4월 이후 7년 만이며, 2010년 6월 터키 압둘라 귤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전통적 혈맹관계와 유럽·중동·아시아의 연결 관문인 터키의 지정학적 입지를 기반으로 실질협력의 발전 잠재력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사우디·카타르·UAE 순방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 경제·통상·건설·보건 분야 등에서 중동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사우디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에 주빈국으로 참가하고, 이 대통령이 개막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한·아랍 문화권 간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했다.

한·터키 정상회담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FTA 올 상반기 체결"

이명박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전통적 혈맹국 터키를 2005년 이후 7년 만에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한·터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양국이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국기업이 터키에 투자하고 건설 산업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을 4월까지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무역 규모는 현재 6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를 촉진하고 투자·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상반기 내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터키와는 경제와 문화, 방산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방산산업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적합하지 않지만, (이번에) 전차와 전투기 협력을 하기로 했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1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터키 앙카라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자, 한류팬 등 터키 젊은 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오른쪽은 터키를 찾은 한류스타 JYJ 재중.

2 터키를 국빈방문한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앙카라 한국전 참전기념탑에서 참전용사들로부터 감사증을 받고 있다.

3 김윤옥 여사가 지난 6일 앙카라 '밀리피양고' 지적장애인학교에서 학생들의 터키 전통요리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터키 원전 건설 진출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터키 정부가 원자력 산업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현한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장관들이 현안 문제를 가까운 시일 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터키 정부는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 안전도와 효율을 높이 평가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터키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키 정부가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민주화와 평화 발전에 매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데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에르도안 총리 내외 주최 오찬 참석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 내외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한 데 이어 에르도안 총리와 별도 면담을 가졌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11월 칸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터키 경제의 발전상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및 진출 확대를 위해 에르도안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에르도안 총리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환영하고 실질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부산광역시와 이스탄불시의 자매결연 등 양국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2013년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인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타임지가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한 내용을 상기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터키의 역할과 에르도안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이에 에르도안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총리의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수락하고, 양국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터키 방문 둘째 날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터키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터키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에 있지만 물리적 거리를 넘어 매우 특별한 인연을 쌓아왔다"고 회고하고, 터키의 6·25전쟁 참전 이후 60여 년간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미래지향적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한·터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 앙카라 한국공원 한국전 참전기념탑에 헌화

이날 만찬에는 양국 정상 내외를 비롯해 두 나라 주요 정계, 관계, 재계 인사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010년 MBC TV의 6·25전쟁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슐레이만 딜비르리이씨(84세)도 참석했고, 이 대통령도 만찬 답사에서 특별히 이를 언급하며 두 나라 간의 깊은 인연을 되새겼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앙카라 한국공원을 방문, 한국전 참전기념탑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 후 탄도안 참전협회장의 환영사에 이은 답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터키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한·터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동 번영과 발전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터키 국회를 방문, 제밀 치첵 국회의장과 만나 정무·경제·통상협력 등 한·터키 양국관계와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터키군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유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양국이 돈독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오늘 출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에 걸맞은 양국관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터키 의회 차원에서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치첵 국회의장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출범을 축하하며 뜻깊게 평가한다"면서, "최근 양국 의회 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1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사우디 리야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사우디를 공식방문한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리야드 영빈관에서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에게 비상시 한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3 이 대통령과 압둘라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이 지난 8일 사우디 최대 문화축제인 '자나드리아' 개막식에 참석해 낙타경주를 지켜보고 있다.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협력이 더욱 증대돼 양국 동반자 관계 증진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 보건·의료 등 전 분야로 협력 확대 의견 모아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 리야드 인근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장 내에서 압둘라 사우디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가 올해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에 우리나라를 '주빈국'으로 초청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양국 정상은 이를 계기로 양 국민 간의 우의와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한·사우디 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사우디의 국민을 위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둘라 국왕은 "이미 양국 간 협력이 잘되고 있지만,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수교 50주년의 우의를 기반으로 양국 간 전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보건·의료·국방·IT·첨단기술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나라는 특히 보건 관리, 의료정보 교류, 의료 전문가 교류, 의학 분야 공동프로젝트와 인력훈련 등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사업도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보건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시행계획서(Executive Program)를 체결했다.

### "한국 요청 땐 원유 추가 물량 공급 등 적극 검토"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을 접견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전통적인 에너지와 건설·플랜트 분야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경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남은 최근 유엔의 이란 제재와 관련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의 에너지 협력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도국인 사우디의 유가 안정과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비상시 한국에 대한 안정적 원유공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나이미 장관은 "한국이 요청을 해오면 추가 물량 공급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영빈관 접견실에서 살만 사우디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 전반과 함께 향후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한·사우디 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을 양국의 상호 우호관계 수준에 맞게 포괄적·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대통령 내외, '자나드리아 문화축제' 개막식 참석

이 대통령 내외는 8일 저녁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초청된 사우디 최대 연례 문화행사인 '자나드리아 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우디는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자국의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했고, 문화행사장 내 한국관을 개설해 한국의 역사·문화·산업 등을 홍보함으로써, 아랍권 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대통령은 주빈국 국가원수로서 압둘라 사우디 국왕과 함께 자나드리아 문화축제 개막 행사에 참석했고, 특별행사인 낙타경주를 관람했다. 사우디 국왕 주최 만찬에도 참석해 내외 귀빈들과 상호 관심사에 관해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자나드리아 문화행사장 내에 위치한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관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우디 내외 인사들은 "한국관이 타임터널(한·사우디 간 역사), 디지털 실크로드(우리 문화 영상), 미래관(15개 한국 기업), 한류·관광 아카이브(K팝, 드라마 등)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리야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럼에는 알 몹티 사우디 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우디 유력기업인 1백여 명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한국 경제인 1백여 명 등 총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카타르 정상회담

## 이 대통령, 신도시 개발에 한국 기업 참여 요청

지난 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카타르를 공식방문한 이 대통령은 카타르 왕궁에서 개최된 하마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하마드 국왕의 공식 초청에 사의를 표했고,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카타르 양국 관계가 LNG·원유 등 에너지 협력강화뿐만 아니라 건설, 의료·보건, 교육,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만찬 동안 시종 격의 없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유치, 한·카타르 간 문화협력 증진, 한반도 문제 및 중동지역 정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만찬에는 양국 정부 고위인사와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카타르 방문기간 동안 카타르가 추진 중인 루사일·무샤이렙 등 신도시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도 도하 숙소호텔에서 압둘 라흐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도하 카타르 왕궁에서 셰이크 하마드 카타르 국왕과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UAE 아부다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카타르 도시계획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1976년 우리 기업이 최초 진출한 이래 해외건설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우리 건설업체들의 카타르 진출, 활동 과정에서 카타르 정부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對)카타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8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 카타르 국부펀드 인천·새만금 개발 참여도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대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중동지역 건설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희망한다"며 "카타르에서 추진 중인 무샤이렙, 루사일 등 신도시 개발에도 신도시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루사일 신도시 프로젝트는 카타르가 펄(Pearl) 인공섬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 중인 대표적 부동산 개발 계획으로, 부지공사 비용만 50억달러다.

아울러 인천 자유경제구역·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투자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카타르 국부펀드가 이러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1974년 한·카타르 간 수교 이래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양국 협력의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삼은 한국과, 올해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카타르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이 유망한 미래 협력분야로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카타르 경제협력위원회'가 향후 상호 투자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발간된 최대 영문 일간지 알-샤크와의 인터뷰에서 "단기간 내 산업 및 사회발전을 이룬 우리의 경험과 기술력 등이 걸프지역 국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양측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녹색성장 등과 관련해 협력 여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990년대 초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5개 신도시를 건설했고, 현재 12개 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는 등 신도시 개발 노하우가 풍부하다. 한국의 경험이 카타르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산(産) 원유수입 제한에 대해 "이란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카타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정상회담에서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UAE 아부다비 방문

## 원유확보와 유전개발·원전공사 재점검

터키, 사우디, 카타르를 순방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마지막 기착지인 아부다비를 방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이어 '원유확보 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의 아부다비 방문은 임기 중 세번째로, 아부다비는 지난 2009년 걸프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미리트 팰리스호텔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이란 제재로 한국이 원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아부다비 측이 원유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지난 1월 김황식 총리 방문 당시 아부다비 측이 원유 수급에 협조해주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사우디와 카타르, UAE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모하메드 왕세자로부터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아부다비 유전개발 우선 참여와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 모하메드 왕세자 만나 '원유확보 외교' 마무리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의 UAE 방문 기간에 최소 10억배럴 이상의 원유채굴권 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적·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양해각서를 아부다비석유공사와 체결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은 지난 2009년 12월 UAE 브라카에 세울 총 4백억달러(한화 47조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친분을 재차 과시하며 양국 간 우호선린 관계를 점검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소식을 듣고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가 간곡히 요청해 이뤄졌다"면서 "원유확보는 물론 유전개발과 원전공사 상황을 재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

글·오동룡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주민증 정보유출 우려 지나치다

##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더 이상 방치 말아야

요즘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세입자의 알토란 같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전세나 대출사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장기밀매 등 대부분의 범죄행위 과정에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증 개선 요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주요현안이자 당면과제다.

일러스트 · 박정훈

2010년 9월 정부에서 제시한 IC카드 기반의 전자주민증은 완벽한 대책은 아닐지 몰라도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방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증은 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IC칩에 안전하게 저장하기 때문에 전자주민증의 겉에 적힌 표면정보와 다르게 위조한 전자주민증을 만들 수 없다. 물론, 표면 정보의 변경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주민증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저러한 의혹의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주민증이 현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대책으로 도입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몇 가지를 살펴보자.

### IC칩이 쉽게 해킹된다?

과거에 실제 해킹이 되었던 IC칩들은 하드웨어적으로 단순 메모리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낮은 수준의 보안 기능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신분증으로 사용되는 IC칩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엄격한 보안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보안 정책이나 암호화키의 길이도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이미 시행 중인 해외의 전자주민증이나 전자여권이 10년 이상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IC칩의 안전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 불법 리더기를 통해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미 전자서명, 상호인증 등 불법 리더기의 설치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방안들이 많이 있다. 전자주민증은 통신을 요청하고 있는 리더기가 불법 리더기로 판단될 경우 더 이상의 통신을 수행하지 않아 불법적인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주민증이 많이 활용되는 주민센터, 은행 등은 대부분 폐쇄망을 사용해 불법 리더기의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휴대용 리더기를 이용한 무작위 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미 여러 전자여권 시스템이나 독일 신분증 시스템에서는 특정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리더기와의 통신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보의 유통이나 복제가 쉽게 이루어진다?

전자주민증 정보는 관공서, 은행 등에서 이미 수집되어 DB에 저장되어 있는 신상정보와의 비교를 위해 이용되거나, 사용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의 대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자주민증 도입 자체가 정보의 유통이나 복제를 가속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면 정보는 수기나 촬영, 복사 등을 통해 쉽게 디지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록 정보는 타인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모두 유출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주민등록증의 이용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수집·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관리적 문제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 정부 DB로 이용 정보가 집적되어 감시·통제가 강화된다?

전자주민증의 판독은 특정 서버와 연결 없이 판독자 PC에서만 이루어진다. 전자주민증 동작 방식과 유사한 전자여권의 경우도 국정감사장에서 외교통상부의 서버와 연결 없이 시연된 적이 있다. 즉 위·변조 확인이나 IC칩에 수록된 정보를 읽기 위해서 특정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정부는 DB에 집적하거나 시스템 간 연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자주민증을 이용한 기관 간 개인정보 연계는 제도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전자주민증을 일면적으로 바라보고 프라이버시 침해 도구로 낙인찍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통제하는가에 따라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변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 권리와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와의 사회적 균형을 잡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균형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전자주민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기술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재 전자주민증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균형을 구현하기에 충분히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보안 문제는 이론적 한계보다는 불완전한 구현과 실제 운영 과정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러한 구현 및 운영상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보안감사, 기술자문위원회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활용 노하우 또한 갖추고 있다.

무조건적인 보안 우려보다는 안전한 설계와 구현, 사전 예방조치, 지속적인 보안관리,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등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더욱 안전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늘날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G

글 · 임종인 (고려대 정보대학원 정보보호연구원장)

전자주민증 보안대책 A to Z

### 개인정보 침해 법·제도·관리적 위험요인 배제

**전자주민증이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이다. 겉면에는 이름·사진·생년월일·발행번호 등을 표시하고 전자칩에 주민등록번호·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넣는다.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은?**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겉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개인정보 도용·유출의 위험이 제기되어 왔고 위변조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다량 유출에 따른 대책으로 발행번호 도입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바꿔야할 상황이다. 현재 OECD 국가 34개국 중 11개국에서 전자신분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국에서 도입 추진 또는 논의 중에 있다.

**보안 대책은?**

전자주민증은 중앙DB에 연계해 개인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IC칩에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이를 읽어서 표면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중앙DB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대량유출의 위험은 없다. 단, 판독기 등을 해킹하려는 시도 등 각종 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선 IC칩 수록정보의 수집·저장·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리더기 전용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선 리더기를 통해 IC칩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관리 측면에선 전자주민증 보급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기술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배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 "IAEA 산하에 '핵물질 과학수사대' 운영하자"

## 고교생 40명, 고려대서 모의 핵안보정상회의… 결의안 채택도

오는 3월 26, 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사고력이 쑥쑥 자라고 있다. 최근 열린 '2012 고려대 모의 유엔회의'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모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갖고 신선한 발상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는 핵물질과 기술의) 불법거래에 따른 국제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가 적극 참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불법적인 핵 거래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별 관세당국과 규제력을 지닌 기구 사이에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국제원자력위원회(IAEA) 간에 1998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돌이켜본다. 1987년 IAEA 회원국들의 합의를 기초로 결성된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를 위한 협약'을 되새기며 불법적인 핵밀매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 증대를 환영한다."

'핵물질과 기술의 불법거래 방지'란 주제의 이 결의안은 미국, 영국, 러시아, 한국, 일본, 폴란드,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칠레 등 33개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서명을 하고 ▲국경에서의 핵물질 검색 강화 ▲핵물질 불법거래 문제를 다루게 될 IAEA 산하의 연례회의 운영 ▲불법 핵물질의 출처 파악을 위한 각국 핵물질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8개항을 제안하고 있다.

오는 3월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벌써 열린 것인가? 물론 아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고려대 내에서 열린 '2012 고려대 모의 유엔회의'에서 약 40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석해 열린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 33개국 대표 맡아 각국 자료 찾아서 회의 준비

모의 유엔회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과 덕목을 키워주기 위해 여러 대학이 개최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참가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국적과 직함으로 실제 유엔회의와 같이 영어로 회의를 진행한다. 모의 핵안보정상회의는 고려대 모의 유엔회의 10개 위원회 중 하나였다.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핵 물질 및 기술의 밀거래 방지 대책에 대해 토론하고 결의안을 채택한 고등학생들. 이들은 때론 발랄하고, 때론 진지한 활동 모습이다.

전다은 고려대 모의 유엔회의 사무국장은 "고등학생들이 참석한 '모의 핵안보정상회의'는 유엔 관련 회의의 하나로 열리게 된 것"이라며 "국제기구나 국제 이슈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만나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모의 핵안보정상회의의 결의안은 개인용 방사능검색기(PRD)의 기능을 발전시켜 장소 구분 없이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핵물질 용기 등에 GPS 탐지장치를 내장해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할 것과 '핵물질 과학수사대'를 IAEA 산하에서 운영할 것 등 실제 적용해도 좋을 듯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했다.

말레이시아 대표를 맡았던 최지은(서울 숙명여고 2학년)씨는 "참가국을 대표하는 학생들 모두 사전에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특히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의 핵 문제 관련 입장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열심히 회의 준비를 했다"며 "행사 기간 내내 정말 진지한 발표와 뜨거운 토론을 했다. 특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느라 다른 회의들보다 힘들었다"고 전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께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말씀한 것을 들은 이후 핵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말레이시아 대표를 지원한 것은 말레이시아란 나라의 입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최씨는 모의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친 후 '베스트 델리게이트'상을 수상했다.

### 숙명여고 최지은양 '베스트 델리게이트'상 수상

양정민(안산 동산고 3학년)씨도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 조사를 하고 실제 자신이 맡은 나라의 대표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기에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핵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른 행사들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주최하는 '대학생 모의 핵안보정상회의(MNSS)'(3월 2~4일)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국 중·고교 에세이 공모전'(1월 9일~2월 19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댓글을 달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네이버 해피빈 '세계 평화를 위한 동행' 이벤트(2월 13일~3월 10일)가 개최되며, 2월 10일 접수가 마감된 '국제 어린이 평화 미술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및 정상회의 참가국 어린이 출품작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행사장에 전시된다. G

글·박경아 기자

## JYJ,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 추가 선정
## 재중은 터키 앙카라대학서 현지 팬미팅 가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2월 2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행사요원발대식 및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JYJ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준비기획단은 지난 11월 가수 박정현씨, 배우 장근석씨, 진지희양 및 왕석현군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아시아, 유럽 및 남미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스타 JYJ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한 것이다.

핵안보회의 준비기획단장이기도 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7일 트위터로 그룹 JYJ 멤버 재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장관은 트위터에 "터키를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앙카라대학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인 JYJ의 재중이 잠깐 동안 자리를 함께해 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 경찰청, 제2차 치안대책위원회
## 안전한 핵안보정상회의 위한 준비 점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장 주변 안전 태세와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2월 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무궁화회의실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제2차 치안대책위원회'를 열고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치안대책위원회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관 차장과 서울청 핵안보단장 등이 참여했다. 경찰청은 교통관리에 대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와 같이 통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인천세관도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행사지원을 위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운선사와 부두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국제동향과 대테러위협 무기류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보사령부 대테러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테러동향과 총기류, 폭발물 등 다양한 무기류의 실물 전시와 위협무기류 식별 요령 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난 2월 7일 눈바람이 불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중심부인 코사마트 사거리. 인적이 드문 거리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어선들이 눈바람을 피해 정박해 있는 강정포구. 어부는 보이지 않고 확성기를 장착한 반대측의 트럭만이 움직이고 있다(왼쪽 사진). 강정포구에서 바라다 보이는 민·군복합형 해군기지건설사업 현장. 방음벽 설치, 지장물 철거 등 공사 준비 과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제주 강정마을 현장

# "검증 계기로 주민 갈등의 골 풀렸으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위치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몇 년째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으로 멍들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제기로 번번이 건설 공사가 발목을 잡혀왔다. 이러한 가운데 논쟁 중 하나인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점검하고 있어 강정마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북(山北)과 산남(山南)으로 나뉜다. 산북·산남은 기후 차이가 크다. 산북은 비가 많고, 산남은 눈이 많다.

산남 지역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은 지난 2월 7일, 입춘이 지났는데도 눈 섞인 드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동쪽으로 난 '이어도로'를 따라 6킬로미터쯤 가니 강정마을 중앙에 위치한 사거리가 나타났다.

'코사마트 사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짓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에 대한 찬성·반대가 마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운영하는 마트가 길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 1월 사거리 공터 한 귀퉁이에 반대측 주민과 외지에서 온 반대측이 사용하는 가건물이 들어섰다. 세찬 눈바람에 마을 중심 사거리 인근 거리를 지나는 사람 모습은 가뭄에 콩 나듯 했다. 꽁꽁 싸맨 모습으로 가끔 들여다보며 길을 찾는 듯한 관광객 두어 명, 간간이 지나는 차량들뿐.

하지만 구호 섞인 플래카드며 깃발들의 모습에서 날씨만큼이나 스산할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 보상과 모든 법적절차 끝났는데 시위로 차질

마을 중심 사거리를 지나니 강정해안 일부에 짓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가 나타났다. 29만평방미터 규모(매립 규모 20만평방미터로 총 기지 규모는 49만평방미터)의 부지는 반대측의 공사 방해시위를 피하기 위해 펜스가 빙 둘러 쳐져 있었다.

지난해 초부터 더욱 활발한 외부 시위세력의 물리력을 동원한 공사방해 불법 시위로 인해 공사 속도는 거북이걸음이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따르면 사업관련 모든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공사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착공한 민·군복합형 해군기지의 지난해 말 현재 공정률은 16퍼센트에 불과하다. 2014년 말까지 1단계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대로라면 30퍼센트 이상 공사를 마쳤어야 한다.

요즘 공사현장 입구에서는 거의 매일 오전 11시경 해군기지건설 반대미사가 열리며, 공사장 앞바다에서 카약을 이용한 해상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공사현장 입구 주변 길가에서는 사거리 인근보다도 많은 플래카드를 만날 수 있었다.

강정마을이 찬반으로 나뉘어 이웃이 원수가 되고, 가족이 남남으로 돌아선 상황이 된 발단에는 2007년 유치 과정이 자리잡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의 류즙희 부단장은 지난 2005년부터 제주해군기지사업을 담당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번복 등 총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 강정 주민 56퍼센트가 해군기지 찬성해 유치

2007년 4월 7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뒤 반대측 주민들은 ▲임시총회에서 거수표결을 했다 ▲참가주민 수가 적어 대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 만에 대규모 마을총회를 열어 유치 결정을 뒤집었다.

류 부단장은 "내막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정마을 향약은 마을 주민 50명 이상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마을의 결정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모임에 1백명도 안 되는 주민이 참석했어도 향약에 의거 결정한 사항이 인정된 겁니다.

또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당시 제주도민의 여론도 강정마을 유치에 찬성했기에 제주도의 제안에 따라 국책사업인 해군기지건설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제주도민 1천명, 강정마을이 포함된 대천동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제주도민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4퍼센트가 찬성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안덕면(화순리 포함), 남원읍(위미리 포함)보다 대천동이 압도적으로 찬성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제주도가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대천동과 강정마을의 인구를 고려해본다면 적어도 3~4가구 중 1가구가 여론조사에 참가함으로써 주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 부단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정말 백지처럼 순수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토지보상과정만 봐도 다른 곳에서 흔한 '보상금 부풀리기'도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순수했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마을에 집창촌이 생긴다. 마을 사람 모두 쫓겨난다'는 등의 소문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임시총회의 결정을 뒤집은 마을총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몇 년째 이어진 찬반 논쟁으로 인한 이웃과 가족 간의 반목과 불화, 연일 울려대는 사이렌과 확성기 소리, 불법시위에 따른 연행과 체포 등으로 인해 찬반을 막론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다.

"강정마을에서 반대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은 찬성하는 분들이 조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류 부단장은 설명했다.

류 부단장은 "반대측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반대측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논리가 정립되어 있는데, 찬성측 주민들은 일부 해코지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니 대놓고 찬성하는 이들이 적다"고 했다.

윤태정 제주해군기지 추진위원회 회장.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경과**

| 시기 | 내용 |
|---|---|
| 1991년 12월 |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신규 건설 결정 |
| 2005~2007년 | 제주도 화순·위미·강정지역 유치 희망(마을회·제주도) |
| 2006년 12월 ~2007년 5월 | 후보지 선정방법 토의 및 확정(제주도)<br>– 5월 중 여론조사(도민 1천5백명, 후보지 각 1천명) |
| 2007년 5월 | 여론조사(제주도가 한국갤럽에 위탁)<br>– 도민 : 찬성 54.3%, 반대 38.2%<br>– 강정마을 : 찬성 56%, 반대 34.4% |
| 2007년 5월 | 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마을 선정, 건의(제주도·국방부) |
| 2007년 6월 |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국방부·제주도) |
| 2008년 8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 발표(정부) |
| 2010년 1월 | 항만공사 계약·착수 |
| 2011년 9월 | 사업부지 내 가설방음벽 추가 설치 및 공사 정상 추진 |
| 2011년 11월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완료, 부지 사용승인(문화재청) |
| 2012년 2월~ | 침사지 및 가설배수로 조성 작업 및 항만구조물 제작 중 |

"물론 반대측 주민들도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입니다. 해군가족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기에 반대측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제기와 각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과정을 거치느라 지금까지 7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지역경제 살려보자고 한 일인데"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던 2007년 마을임시총회 개최 당시 마을회장이었던 윤태정(57) 강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솔직히 이렇게 마을이 갈라지고, 오래 끌 줄 알았다면 유치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날로 생기를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려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돈 받고 유치 결정을 이끌었다는 의심을 받고 '마을 팔아먹은 놈' 등 온갖 비방을 들어야 했습니다."

행정동으론 대천1동인 강정마을은 지난 1월말 현재 7백22세대 1천8백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3백78명(20퍼센트)으로 전체 대천동의 고령화율(14퍼센트)보다 높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사거리 즈음에 위치한 강정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와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아이들이 늘어날 것에 기대를 걸고 분교로의 축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최근 제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놓고 지난 1월 26일부터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를 점검 중이다.

윤 회장은 "이번 검증으로 논란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제부터라도 지연된 공사 속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란 강정마을 주민들의 희망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반면 반대 주민의 대표격인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총리실의 검증위 활동에 대해 "합당하다는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15만톤급 크루즈가 드나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입지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란 입장이 여전했다.

### 같은 姓씨끼리는 비방 자제

어찌 보면 찬성과 반대가 접점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듯도 하지만, 작은 변화들도 감지됐다. 얼마 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적어도 같은 성(姓)씨끼리는 비방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리실의 검증 결과가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강정마을의 모든 주민 가슴에 박힌 얼음가시를 녹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군항 건설 사상 처음으로 민·군복합항 형태로 건설하고 있으며, 강정마을 일대에 대한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는 물론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마을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제주해군기지와 함께 상생과 발전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에절남 총정리

서귀포시 이**(42)

겨울철 실내 온도를 30도로 올려도 춥던데, 적정온도는 몇 도인지 애매합니다.

온도를 올려도 올려도 춥다 하시는 분들은 한증막에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겨울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잉~
겨울철 실내온도는 20도로 딱! 정한 거예요.

내복 안입는다고 쇠고랑인찹니다~잉! 경찰출동 안해요~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약속인거예요!

강동구 최**(27)

올 겨울 트렌디하면서도 따뜻한 코디법 없나요?

내복 입으세요~잉! 에너지 절약을 패션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너 혹시 내복 입었니? 아~ 창피해"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당신이 창피한 거예요.
내복을 입으면 온도 3도 올린 효과가 나고 전기요금은 20%가 줄어드는 겁니다잉~
혹시 빨간 내복이 옷 밖으로 삐져나왔다 해도, 이건 레깅스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대전시 신**(15)

우리 엄마는 제가 샤워할 때마다 뭘 그렇게 물을 콸콸 쓰냐며, 목욕은 목욕탕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대체 목욕과 샤워의 기준이 뭔가요?

목욕은 목욕탕에서, 집에서는 샤워만 하는 게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맞아요잉~!
목욕과 샤워의 기준 정해드립니다.
만약에 씻다가 '아~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목욕인 거예요.
샤워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샤워하면서도 때 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분이 넘는다! 그러면 그건 목욕인 거예요~

공감코리아(korea.kr)에 접속하면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잉!

http://energysave.korea.kr

검색창에  이라고 쳐보세요!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지난 2월 6일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 "학교폭력, 그만!"… 행복한 학교 만든다

## 7대 실천 정책… 각계각층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는 직접적인 대책과 더불어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해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근본대책을 포괄적으로 망라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앞으로 즉각적인 등교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학교폭력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입학 전형에도 반영되며,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관련 전문가·학생·교사 등과 3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힘써왔으며,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다음과 같은 7대 실천 정책을 수립했다.

### 대책 1 학교장·교사의 역할책임 강화
###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담임제

앞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한다.

학생 생활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학급에 2명의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도가 도입된다. 2012년 중학교에 우선 적용되며, 20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해 관리하고, 다음 학년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에게 인계한다. 졸업 시 관련 내용은 삭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은 2012년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된다. 이 기록 보존기간은 초·중학교가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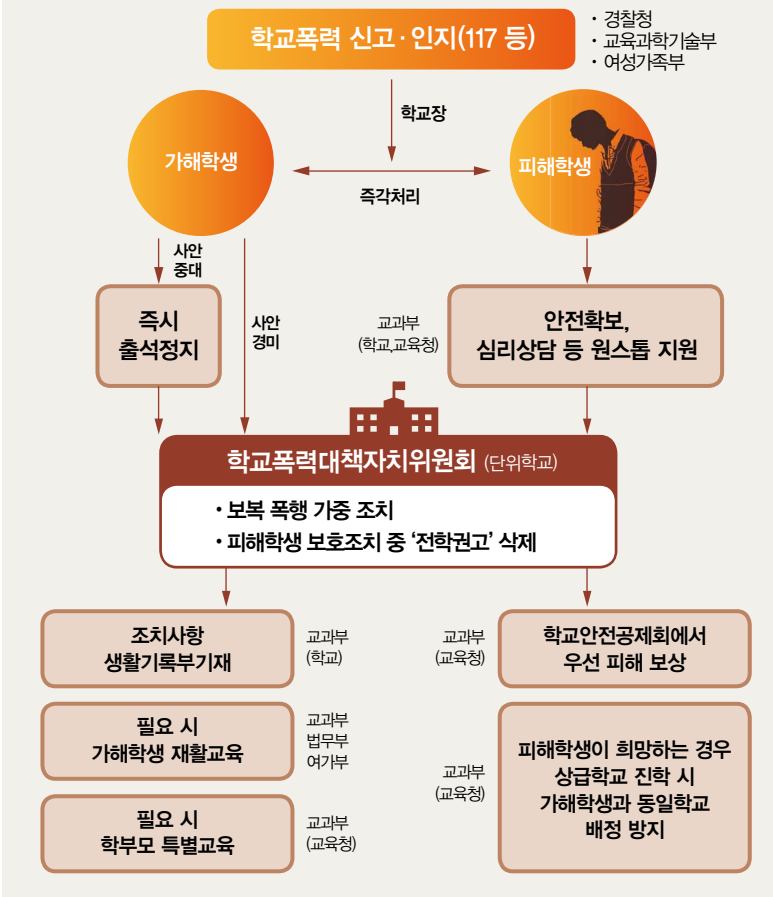
### 대책 2 관계 기관 협력해 피해학생 우선 보호
### 상급학교 진학에 피해학생 의사 반영

경찰청으로 통합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 설치하고(1→17곳),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례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전국 1백26개 Wee센터, 1백86개 CYS-Net)로 사건을 이송 처리하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 그동안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하나였던 '전학권고' 조치는 사라진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해 피해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는 '선-치료지원, 후-처리시스템'을 마련한다.

### 대책 3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 위한 지원
###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 인식 정착토록

2012년 시범기간을 거쳐 2013년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중재·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학생간 갈등을 대화와 토론,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등학생 1천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학생모니터단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 등 학생과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학교 실정에 적합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연 1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해 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Wee센터와 연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대책 4 학부모 이해와 참여 제고
### 학부모 이해·참여가 학교폭력 예방 열쇠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를 소환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 | |
|---|---|---|
| 구분 | 현행 | 법령·규정 개정 후 |
|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 근거 규정 없음 | • 즉시 출석정지 법적 근거 마련 |
| 피해학생 경찰 동행보호 | 근거 규정 없음 | • 피해학생 경찰 동행보호 규정 신설 |
| 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 | • 근거 규정 삭제 |
| 피해·가해학생 동일학교 진학 금지 | 중학교 진학 시 동일학교 배정 | •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 | 의무화되지 않음 | • 피해학생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br>•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마련 |
|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와 합의 또는 피해학생 학부모 자비 부담 | •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
| 학교폭력 신고체계 | 각 부처 및 기관의 신고전화 산재 | •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 |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
|---|---|---|
| 구분 | 현행 | 법령·규정 개정 후 |
|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에게 요청→학교장 출석정지 조치 | • 학교폭력 발생 즉시 학교장이 출석정지 조치 시행 |
| 출석정지 기간 |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 제한 없음 |
| 출석정지로 인한 유급 | 유급 불가능 | • 유급 가능(연간 수업일수 3분의 1 미만일 경우 유급) |
| 보복 폭행, 장애학생 폭행 | 근거 규정 없음 | • 가중조치 또는 병과–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 |
| 전학 |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움 | •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교육감(고등학교)이 학구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
| 상급학교 진학 시 타학교 배정 | 근거 규정 없음 | • 피해학생 선배정 후 가해학생 추후 별도 배정으로 동일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 의무사항 아님 | • 학부모 소환 의무사항이며,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검토 |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기록 |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기록의무 없음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
| 재활치료 | 의무사항 아님 | • 시·도 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 프로그램 필수 운영<br>•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 |

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란 인식하에 그간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학부모 교육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직장, 민간단체 등 학교 밖으로 학부모 교육 공간을 확장하고, 시간적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위해 학기별로 1회 이상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학부모 상황을 고려해 가정방문 면담, 이메일 면담 등도 가능하다.

**대책 5** 지속적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 근원 차단

### 학생부의 인성 항목 대입전형에 반영

대책만 반복되고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 전반에 대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3~5세 누리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생활교육–교과교육–체험교육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중학교의 경우 현행 주당 2~3시간인 체육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고 교내 스포츠 활동을 확대한다.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사업,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 시 학생의 인성 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 전형,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해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대책 6**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 밥상머리 교육 캠페인 추진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짐 지운 탓도 크다는 인식하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며,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관련 부처에서 가족단위 혹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예술봉사과학 등 분야의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가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 학부모 교육은 앞으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을 방문한 학부모.

**대책 7** 폭력성 부추기는 게임·인터넷중독 예방

###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정부는 청소년들의 폭력성을 키우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시작 후 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

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 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 제도를 보완하며,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PC방 출입 단속도 강화한다.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강화해 진단 결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유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글·박경아 기자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02-2100-6981

'일진경보제'는 이렇게

### 한 학교서 2회 이상 신고 땐 경보 후 조사 착수

최근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은 과거의 폭력서클과 달리 다양한 부류로 진화해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다. 학교 내에서 비정상적 권력구조를 만들면서도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세력화되어 일진 여부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나온 '일진경보제'는 우선 학생들이 학교 내의 일진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일진'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등 일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117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과 국가수준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뒤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될 경우 일진경보를 작동한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일진경보가 작동했음을 알리고, 학교폭력조사 담당 직원, Wee센터 전문가 등을 학교에 파견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

구체적인 폭력사례와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일진소속 학생들은 전문가상담, 또래상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파악된 일진이 외부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거나 학교폭력 조사 담당직원의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진경보 사실의 공개는 해당학교에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외부 공개 시 폭력이 많은 학교라는 낙인 우려로 일진 문제가 음성화될 수 있어 일반 공개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복수담임교사제' 운영은

### 담임학급 공동책임… 업무분담은 학교실정 맞게

'복수담임제'가 도입된 것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원이 바로 담임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우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학교에서 자율 운영되는 '부담임제'는 담임교사 결근 시 담임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해주는 형태여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업무 분담을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교 교사의 40퍼센트 정도는 비담임이다.

담임은 알림사항 전달·급식·청소지도 등 학급운영, 학생상담·출석 및 지각 점검·학부모상담·복장지도 등 생활지도 업무를 맡는다. 부담임은 학적관리, 학급행사 운영, 학급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한다. G

일러스트 · 유재일

# 심리치료가 우선… "Wee센터 도움 컸어요"

## 가해자 · 피해자 모두 전문 상담 필요… 심리 안정되면 진로 상담도

초미의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문제를 은폐하지 말고 Wee센터 같은 공익 상담기관을 찾아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e센터에 의뢰된 각종 사례 중 학교폭력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 사례 1 경기도 성남 E고등학교 L군(17)
### 대안교육서 갈등극복 체험으로 폭력습관 고쳐

고등학교 1학년 초 지방에서 전학을 와서 많은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을 때 쉽게 친구들과 사귀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친한 친구도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L군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았다.

L군은 이렇게 어색한 관계가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과 계속되면서 가끔 갈등 상황이 발생되면 서슴없이 폭력을 사용하였고 이를 무조건 L군의 잘못으로 꾸짖는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문제시돼 대안교육에 의뢰됐다. 그곳에서 상담 치료 중 생활태도에 대한 이상은 높으나, 현실상황에서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5일간의 대안교육 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같은 기수 학생 5명 중 유일하게 다른 학교 학생이었음에도 잘 적응하여 무사히 수료했다. 수료 후 대인관계에 있어 갈등 상황에서 먼저 상대에게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니 상대방도 이해하고 부드럽게 나오는 경험을 했다. 이후 여러 번의 갈등상황에서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한 경우가 없다.

### 사례 2 서울시 H중학교 2학년 J군(15)
### 상담 통해 행동 반성… 운동으로 학교생활 적응

J군은 덩치가 크고 힘이 남달리 강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위의 보통 친구들은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고, 질 나쁜 친구들은 같이 놀자는 등 은근히 접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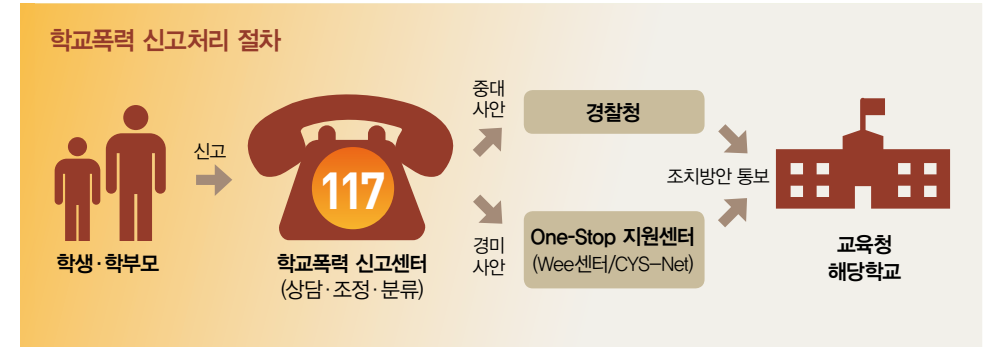
어느 날 친구가 자기 몸에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하여 같이 알아보고 조금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강제로 시킨 것으로 누명을 쓰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명돼 처벌을 받고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받았다.

그는 총 10일의 Wee센터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했다. 출석시간을 잘 지켰으며 진행을 잘 따랐고 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결과로 무엇이 따르는지 재확인했다. 센터는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 및 상담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특별교육 이수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2011년 11월경 진로를 모 구기종목으로 정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중·고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J군은 "Wee센터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특별교육 이수 과정 중 상담원과의 1대 1 개인면접상담이 큰 도움이 됐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 사례 3 경기도 안양 A중학교 B군(16)
### 미술·놀이치료 받고 소심한 성격 조금씩 개선

B군은 지속적인 따돌림로 인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했다. B군은 학교에서 가해자 아이가 자신에게 침을 뱉고, 교복을 커터칼로 잘라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어머니께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소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비용 문제가 발생해 Wee센터를 찾게 됐다. B군은 상담 중에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모자를 쓰고 와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Wee센터에서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를 지속하고, 또래 상담이나 멘토링을 연결해줘서 학교에서 맺어보지 못한 또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현재는 사후 상담 관리를 하고 있다.

B군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자신의 생각을 작은 목소리지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단 한 번도 친구가 없다가 상담을 하면서 처음으로 같은 반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신이 하고 싶은 꿈(요리사)이 생겼으며, 집에서도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등 예전과는 달리 자신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사례 4 경기도 C중학교 D군(16)
### 이유 없는 따돌림 후 원만한 교우관계 방법 배워

D군은 이유나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심할 때는 친구들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잠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유로 Wee센터에 상담이 의뢰됐다.

D군은 Wee센터 전문상담교사와 1년여 동안 주 1회 정도 상담을 받으며 심적 안정을 되찾았다. 친구를 대하는 방법을 달리하기도 하고 강요를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법, 싫다고 표현하는 법에 대해 진지한 상담을 받았으며, 친구와의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배웠다. 2학년으로 진학한 D군은 현재 학급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사례 5 경기도 성남 거주 40대 주부 K씨
### 학교폭력 피해 딸 우울증, 상담 거쳐 적기에 치료

K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로, 중학교 1학년 딸이 학교 친구로부터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당한 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지만 이후로도 가해학생과의 격리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상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인 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딸을 전학시켰다.

K씨는 지난해 10월 성남Wee센터에 "우리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및 청소년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직접 상담 의뢰를 했고 현재까지 딸을 상대로 10회기의 특별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동안 우울 및 분노조절에 대한 부분과 도덕성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다. K씨의 딸은 2학기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가정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돼 현재 학업과 진로분야로 상담진행이 예정돼 있다. G

글 · 박영철 기자

문의 Wee센터 www.wee.or.kr / 학교폭력 긴급전화 ☎117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가정 · 학교 · 사회 곳곳에서 폭력성 자극

## 청소년 사회성 육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 · 봉사프로그램 필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특징과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상담전문교사가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법을 들려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상담은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진은 서울 천호동 천일중학교 학교폭력상담실의 상담 모습.

연일 매스컴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관련 부처에서는 대책을 내놓는 등 온통 나라가 학교폭력에 젖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일개 학교나 지역사회 더 나아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공통 관심사이며, 학생이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폭력이 점점 포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라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특징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한다면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춘기 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은 공격성이다. 공격성은 강도나 유형의 차이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폭력이나 범죄 등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충동성과 타인에 대한 강한 지배욕, 낮은 공감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나타나며 결국 아주 작은 문제도 대화보다는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한 행동이 공격행동과 폭력행동으로 이어진다.

### 사춘기 특성인 공격성을 순화할 장치 필요

가정은 기초집단이며 인간형성의 근간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의 장애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 강압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행,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자신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의 만연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연구를 볼 때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의 상당수는 가정폭력 경험과 동시에 부모 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은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를 모방하여 폭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요즘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에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부유한 경우도 있어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빈곤 가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가정의 자녀들이 무력감,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 등을 초래하기 쉽다.

###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훈련 부족도 원인

다음으로 청소년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학교에서의 욕구 좌절은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갖는 학교 결속력은 학교가 학생 개인에게 학교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업도는 곧 성적 및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순위에 의해 평가되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대한 좌절 및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학교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학교 결속력은 약화된다. 청소년들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 불만, 스트레스 등을 열등한 학생에 대한 괴롭힘, 폭력 등으로 해소하여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와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밖에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낮은 성적, 교사의 무관심이나 부적절한 대우, 낮은 학문적 자아 개념 또는 학업적 흥미, 문제 학생과의 교우 관계 등도 있다.

끝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감정 반응을 둔화시키며 분노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조장하여 반사회적인 공격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열린 학교폭력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학교, 교사, 학생, 교육당국, 지역사회, 부모 등 모두의 문제로 서로 협력할 때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당국과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이해, 격려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가해학생, 피해학생, 부모 등을 중재하고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교사와 학교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학교 · 교사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대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상담전문교사를 통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교사·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의 확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법 제정 등 제도적 부분의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험활동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학생의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성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에의 사회체험이나 봉사활동, 다른 학년 교류에 의한 집단활동 등의 체험활동이 충실하도록 지역사회에서도 조직적,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G

글 · 한길자 (천안Wee센터 실장)

▲ 지난해 11월 15일 창단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 실업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창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 – 창단비용 50% 지원
▶ 장애인 선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비장애인스포츠 실업팀 – 선수별 2천만원 이내 지원
▶ 기존 장애인 실업팀 – 운영비 2천만원 이내 지원

공모기간 2011. 12. 05 ~ 2012. 02. 29
공모방법 사업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8부(작성양식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부(070-7422-0078)

# 아랫목 온기 퍼지듯 피부로 느끼는 정책효과

정책의 성과는 때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
수치로는 도무지 표현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법이다.
경제적으로는 크지 않은 도움이더라도
그 의미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꾸고
소상공인들이 주눅들지 않는 사회,
노인들이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재기의 힘을 얻는 세상을 위한,
화려하지 않지만 사회의 온기를
조금 더 올리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일러스트 · 유현호

# "특허 믿고 창업자금 지원해줘 큰 도움"

## 정희정 바이오허브 사장 "생약추출물 화장품 품질 뛰어나 고객들 호평"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화장품회사 바이오허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은은하면서도 상큼한 향기가 온몸을 찔러댔다. 이 회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3천5백만원을 무상 지원받았다. 덕분에 생약성분의 제품개발에 성공, 매출을 쑥쑥 올리고 있다.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수혜 기업인 화장품회사 바이오허브는 직급 대신 별명으로 서로를 호칭한다. 사진은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한 정희정 사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직원들.

"제아! 손님 오셨어요."

안내하는 직원이 정희정(36) 사장에게 이렇게 기자의 방문사실을 알려줬다. "제아가 무슨 말이지?"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올해부터 직원 간에 직급 대신 각자가 정한 별명을 부른다고 한다. '제아'는 정희정 사장의 별명이다. 나머지 직원들의 별명은 미요리, 쵸리, 아리, 토르, 케이트, 형이다.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직급 파괴가 이 회사에서는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셈이다.

직원이래 봤자 정 사장을 포함해 총 7명. 지난해 1월 신규 법인 설립을 했으니 햇병아리 기업이다. 그러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다. 지난 한 해에만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50억원이 목표다. 이 실적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만 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 소수정예 경영… 제조는 협력업체 맡겨

여성 6명, 남성 1명인 사무실은 활력이 넘쳤고 정 사장의 태도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엿보였다. 성공비결을 물어봤다. "제품력이 뛰어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제품력이 어떻게 뛰어난지 들어봤다.

"우리는 효과 좋고 안전한 원료를 쓰고 화학원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때만 최소화해서 씁니다. 예를 들면 화학원료인 계면활성제도 우리는 콩 추출물의 일종인 콩 페시틴을 쓰는 등 식물성으로 바꿨습니다."

바이오허브는 생약추출물 특허(특허등록 제0786733호)를 기반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 회사는 기획·연구개발·디자인·마케팅·고객상담만 하고 제조는 협력업체에 의뢰한다. 따라서 소수정예 위주의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정 사장은 "뛰어난 제품력 못지않게 나라에서 알토란 같은 돈을 시드머니로 지원해준 것도 성공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3천5백만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덕분에 그는 사업 초창기에 누구나 겪는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제품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다.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이익도 늘어났다. 마케팅도 활발하다. 블로그 마케팅은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VIP고객을 중심으로 품평단을 운영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시제품을 뿌렸다.

그는 이 사업이 생애 첫 사업이다. 전주가 고향인 그는 원광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가족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관심이 작용했다. "어릴 때부터 양약을 잘 못 먹었습니다. 양약을 먹으면 토하거나 두드러기 등 피부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의료경영에 관심이 생겼고 병원을 경영하려면 환자와 간호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2005년 서울 영등포의 한 간호학원에 진학했다.

### 지난해 10억원 매출… 올해는 50억원 목표

그는 2005년 말 분당의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5월 서울 대치동의 한의원으로 옮겨 1년반 근무한다. "관리사로서 상담하기 위해 본초학 책을 많이 봤는데 약재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천성이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한의사급 한방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2007년 11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오랜 객지생활을 한 탓인지 몸이 안 좋아져서 고향에서 요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해지자 못 말리는 학구열이 발동했다. 2009년 전주대 음악학과에 편입해 클라리넷을 전공했고 지난해 2월 졸업했다.

졸업을 앞둔 재작년 말에 그는 현재의 사업을 구상했다. "제 친지 중에 딸이 피부가 좋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개발한 생약추출물 특허를 활용하면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지난해 1월 이분한테서 특허를 이전 받아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특허 보유가 돋보였는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화장품회사 바이오허브의 정희정 사장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3천5백만원을 무상지원 받은 것이 사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기능성 화장품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다. 그에게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G

글·박영철 기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사업목적**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지원대상** 협약종료일 3개월 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규모** 1백62억원, 3백70여 개 과제

**지원내용** 총사 업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중점지원분야는 최대 5천만원, 일반분야는 최대 3천5백만원 한도로 지원. **문의** 중소기업청 www.smba.go.kr ☎(국번없이)1357

# “바닥난 자금 고민할 때 힘 되었죠”

## 배정훈 속초수산 사장 “1천만원 융통 안돼 사채 썼으면 큰일났겠죠”

저신용자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대개 소득수준이 낮고 자산도 많지 않다.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성공과 재기의 길은 멀기만 하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해준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배정훈 사장도 미소금융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경력 17년차의 베테랑 일식 요리사인 배정훈 속초수산 사장은 미소금융에서 받은 대출을 통해 개인파산 후 재기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속초수산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주택가의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쉽게 눈에 들어왔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점심시간은 지났고 저녁시간은 먼, 어정쩡한 시간이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배정훈 사장은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가 아주 잘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배달과 포장 영업은 괜찮은 편입니다. 전단지를 주택가에 돌리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 사장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떼돈’을 벌지는 못해도 가게를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가게를 막 연 지난해 5월의 사정을 생각하면 꿈만 같은 요즘이다.

배 사장은 17년차 경력의 주방장이다. 1996년 처음 횟집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우연히 들어선 길이었다.

“타일 공사를 주로 했는데 허리를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저와 같은 나이의 주방장을 보니 부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 빚보증으로 파산선고 받고 창업으로 재기

다행히 주방일은 적성에 잘 맞았다. 하루의 반 이상을 서서 일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경력이 쌓이고 소득도 늘었다.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둔 아버지가 됐다. 걱정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배 사장의 고민은 깊었다. 자금 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었다. 대출을 얻어 어려운 처지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준 것이 탈이 난 것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2007년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가족들 충격이 컸습니다. 집으로 경매 집행관이 들이닥쳤으니 그럴 수밖에요.”

면책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파산 이후의 삶은 고달팠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결단이 필요했다. 창업을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은 배 사장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곳은 없었다. 배 사장의 아내가 나섰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사정해 어렵사리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의 일이었다.

“장사가 나쁘지 않았어요. 서비스를 넉넉하게 줘 단골을 확보하고 온가족이 매달려 인건비 지출을 막았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실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비싼 편인 데다 계약 1년 만에 월세를 올리니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싸고 좋은 자리도 있으니까요.”

새로 마련한 가게는 넓었다. 이전보다 갑절이 컸다. 임대료도 적당했다. 널찍한 홀에 손님들이 가득 찰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왔다. 종전 점포에 투자한 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해 상한 속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사가 안됐다.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계절은 횟집의 비수기인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당장 월세며 식재료비며 가게를 돌릴 운영자금이 부족했다.

### 연리 2퍼센트 자금마련에 안도의 한숨 절로

그러나 돈을 구할 곳이 없었다. 신용이 낮은 배 사장에게 은행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 벌릴 친인척도 없었다. 이미 창업을 위해 신세를 진 상황이었다. 금리가 연 40퍼센트에 이르는 대부업체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고민하던 차에 TV에서 미소금융을 소개하는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니 당연히 반가웠죠. 나라에서 운영한다니 뒤통수 맞을 일도 없잖아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돈을 빌려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자격지심이었죠.”

배 사장의 걱정은 기우였다. 미소금융 관계자들은 배 사장에게 ‘의외로’ 호의적이었다. 최대한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미소금융은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창업자금과 1천만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최고 4.5퍼센트로 은행보다 오히려 낮다.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운영자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첫 상담 후 15일 만에 1천만원의 자금을 받았다. 금리는 2퍼센트대에 불과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고맙죠. 미소금융이 없었으면 사채를 썼을 테고 큰일이 났을 겁니다. 돈이 필요한 시점이 비수기인 여름이었으니 이자를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게다가 지난해 여름은 비가 많이 와서 장사가 지독하게 안됐거든요. 미소금융으로 위기를 넘기고 장사가 안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정훈 사장은 “미소금융이 없었다면 큰일이 났을 것”이라며 “빚 없이 가족을 부양하기”를 소망했다. 사진은 배 사장과 그 가족.

배 사장은 이제 미소금융의 ‘팬’이 됐다. 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미소금융부터 찾으라”고 권한다. 그중에는 실제로 미소금융에서 대출받은 이도 있다.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그저 아이들 교육하고 큰 걱정없이 살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빚 없이 사는 게 소망이라면 소망이죠. 경기가 얼른 회복돼서 장사가 조금만 더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

**미소금융사업**

**사업목적**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설립됐다.

**지원대상**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계층

**지원규모** 2조2천억원

**지원내용**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운영자금 최대 1천만원을 연리 4.5퍼센트 이하로 대출

**문의** 서민금융119 ☎(국번없이)1600-3500
미소금융고객센터 ☎1600-3500
미소금융중앙재단 www.smilemicrobank.or.kr ☎1600-3500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가족해체 위기… '나들가게'로 인생역전

## 서승자 안산 싱싱할인마트 사장 "2년 만에 3억 빚 거의 갚았어요"

어두컴컴한 점포, 먼지 앉은 진열대,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이웃에게마저 외면받던 동네 슈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10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한 '나들가게'를 만나면서부터다. 나들가게 우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앞 싱싱할인마트의 서승자 사장은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재기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안산 싱싱할인마트의 서승자 사장. "재기 성공과 함께 자신감도 찾았다"고 말했다.

"8년 정도 슈퍼를 운영했어요. 대학가의 원룸 밀집 지역이어서 그럭저럭 잘 운영해왔는데 2007년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매일 적자가 이어졌지요. 여기에 물건을 납품했던 식당이나 병원, 게스트하우스 등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서 밀린 물건 값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됐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만 3억원의 빚을 졌어요. 이 때문에 살던 아파트가 은행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고 자살까지 결심했던 저였습니다."

2009년 겨울 서승자(42) 사장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궁지에 몰린 쥐처럼 더 이상 뒷걸음칠 공간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당시 마트 경영부실로 매일 물건을 공급받던 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가족 해체의 위기까지 맞아야 했다. 더 이상의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채까지 쓴 결과였다.

하루하루 죽을 방법만 생각하던 중 그가 살 방법을 찾게 된 것은 2010년 초 우연히 신문에서 본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관련 기사였다.

### 운영하던 슈퍼마켓 적자로 살던 아파트 경매 위기

기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팅 및 시설개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에겐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 희망의 불빛과도 같았다. 그는 '그래, 이것마저 안 되면…'이라는 생각으로 '나들가게' 신청서를 냈다.

이전까지 동네 슈퍼에 지나지 않았던 싱싱할인마트는 2010년 4월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먼지 앉았던 칙칙한 간판은 깔끔한 스타일의 눈에 띄는 간판으로, 주먹구구 방식의 계산은 재고 파악이 쉽고 계산이 편리한 컴퓨터 점포판매시스템(POS)으로, 두서없던 진열대는 구매자의 동선과 심리까지 고려한 진열 방식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했다.

깔끔하게 진열된 상품들. 싱싱할인마트는 '나들가게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췄다.

원룸 밀집 지역, 대학가 주변이라는 점을 공략해 '자정 폐점' 영업방식에서 24시간 영업으로 전환해 편의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 나갔다. 노인들을 겨냥한 장바구니 배달서비스,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 등으로 단골을 확보해나갔고 버스카드 충전이나 택배대행 서비스도 했다. 우선 수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나들가게 간판 달고 두 달 가까이 마트에서 살다시피했어요.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봉욱씨 비롯해 진흥원 지도요원들이 함께 하루에도 냉장고를 몇 번씩 옮기고, 진열대를 몇 번씩 바꿔가면서 가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주셨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 편의점 · 대형마트 못잖은 경쟁력으로 탈바꿈

하드웨어의 변화뿐 아니라 서 사장은 사업 내용 중 하나인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경영마인드도 바꿨다. 그렇게 석 달을 매장 운영에 '올인'하고 나니 빚더미에 올랐던 마트는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해 5~6월에는 대학 축제와 맞물려 하루 매출이 7백만~8백만원을 기록할 때도 있었다"는 게 서 사장의 얘기다.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싱싱할인마트는 단골 고객층만 2천여 명, 하루 매출 5백만원 정도의 마트로 급성장했다. 매장도 두 배로 넓어졌다.

이와 같은 성적으로 사업 참여 2년도 안 돼 나들가게 우수점포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 사장은 "불과 2년 만에 3억원의 빚도 거의 다 갚았다"고 전한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요즘 상황은 어떨까. 서 사장은 "힘들 때 모든 걸 걸고 덤볐더니 오히려 이제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동안 매장 판매뿐 아니라 인근 대형식당이나 게스트하우스, 웨딩홀, 병원 등을 공략해 납품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 "가격경쟁력도 갖도록 제도적 뒷받침 있어야"

하지만 서 사장은 '나들가게=성공'이라는 공식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자신의 경우 해당 정책이 나온 시기와 당시 처한 상황이 잘 맞아떨어졌고, 나들가게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 관계자들과 호흡도 잘 맞아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해당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히지만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과 바람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유통구조가 대형마트와 다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대형마트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나들가게 점포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전했다.

이어 "매장이 변신에 성공하고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10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으로 향하게 돼 있다"면서 "나들가게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 · 박근희 기자 / 사진 · 이경민 기자

###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사업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팅 및 시설개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 점포 총면적 3백제곱미터(약 90평) 이하 슈퍼마켓 및 개인 편의점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및 경영컨설팅, 상품배열 최적화 지원, 나들가게 전용 POS 설치 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현대식 간판 교체 지원, 점주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나들가게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나들가게 육성지원 신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문의** 나들가게 www.nadle.kr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82~7789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결혼이민자… "그래도 우린 공무원"

## 성동구청 웽티김손 · 김소영씨… "외국인 민원 해결에 보람"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4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일자리에 대한 이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2명의 결혼이민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구청 민원실에서 외국인 내방객들의 민원안내와 상담, 통역 업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공무원으로 일하는 웽티김손과 김소영씨를 만나보았다.

이경민 기자

"우리 일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보람을 느껴요." 다문화 출신 웽티김손(오른쪽)씨와 김소영씨는 서울 성동구청에서 외국인을 위한 민원업무를 맡고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퇴근 시간이 일정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채용 결정이 난 다음부터 남편은 '우리 부인이 공무원이다'라며 여기저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만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하고요. 베트남에 계신 친정엄마도 잘하라고 격려해주셨어요."

베트남계 한국인 웽티김손(26)씨는 성동구청 최초의 이주민 출신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채용정보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았는데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도와주셨고요. 지원자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채용이 결정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외국인 지원업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웽티김손씨의 파트너이자 든든한 언니 역할을 하는 필리핀계 한국인 김소영(39)씨 역시 계약직이지만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성동구청 1층 민원실의 외국인 전용 상담코너에서 상담안내역으로 일하는 이들은 결혼을 계기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결혼이민자'들이다.

성동구청이 다문화가정과 탈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민원실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5월에 채용되어 약 2개월에 걸친 업무교육을 받고 구청 민원실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웽티김손씨는 "민원 업무로 얻게 된 성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전했다.

"가계에 보탬이 된다는 점도 좋고 우리 일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보람을 느껴요. 처음 근무할 때보다 찾아주시는 분들도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전에는 혼자서 구청에 찾아오기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해주시는 거 있죠."

한국에 정착한 지 각각 7년, 15년차인 웽티김손과 김소영씨는 그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김소영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보습학원 등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 두 딸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한 것이다. 3년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지금의 일자리를 찾았다는 그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전한다.

"어렵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으로 공무원시험을 보고 싶어요. 물론 당장은 한국어 교육과 행정에 대한 공부를 해서 지금 하는 일을 더 완벽하게 수행해야겠지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교육이 업무에 도움**

앳된 얼굴에 차분한 성격의 웽티김손씨는 이곳에 근무하기 전에는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일했다. 일하는 틈틈이 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업무 수행능력을 키워왔다.

"한국어도 더 잘하고 싶고 영어, 중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중국어권 분들이 찾아오시면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소영언니가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데 볼 때마다 부러워요. 저도 언니처럼 여러 나라 언어를 익히고 싶어요."

이들은 모두 외국인근로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지금의 일자리를 만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구청에서 일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기회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김소영씨는 전한다.

물론 민원 업무가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저희가 있는 부스는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인데도 한국 분들이 오셔서 '왜 너희가 여기 있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김씨는 전했다.

"하지만 안내를 해드린 한국인, 외국인 민원인 대부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세요. 그 덕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한 '일의 즐거움'이다.

**"민원업무 맡고 보니 한국어 공부에 더 의욕"**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 웽티김손씨와 김소영씨의 소속 부서인 성동구청 보육가족과 이주민지원팀의 윤병도(54) 팀장은 "단순히 행정적인 안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이는 기존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던 일인 만큼 우리 팀의 업무에 큰 보탬이 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행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윤 팀장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는 김씨는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도 야간 강좌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 한국어를 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다.

"외국인 전용 안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위한 안내업무도 하게 돼요. 한국어를 지금보다 더 잘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를 찾으신 분들이나 구청에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구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멋진 안내데스크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G

글 · 이윤진 객원기자

### 다문화가정을 위한 취업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취업교육은 각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센터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이 이뤄진다. 최근에는 취업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구청의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창구'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www.mcfamily.or.kr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 www.migrantok.org ☎02-6900-8000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1577-5432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www.seoulok.kr ☎1644-1615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매달 연금에 여유 생겨 자식들에 떳떳"

## 경기도 구리 기홍철씨 "내 집에 살면서 남는 생활비로 적금도 들어"

설날인 지난 1월 23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의 한 아파트. 집안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색소폰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기홍철(69)씨의 연주에 맞춰 큰아들 봉철(42)씨를 비롯한 삼남매와 손자들이 한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 색소폰 짱!" 손자 현빈(11)군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한준호 기자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선택한 기홍철씨. 기씨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나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어느 모로 보나 걱정거리 하나 없는 화목한 가정이다. 그러나 1년 전만 해도 기홍철씨는 불안했다고 한다. 1998년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은퇴한 뒤 보험 손해사정사로 일하며 받는 수당(1백50만원)과 국민·개인연금을 포함해 한 달 수입이 2백25만원이었다. 세금 내고, 아파트 관리비 넣고 경조사에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59만원 적자였다.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할 텐데 불안하기만 했다고 한다.

"30여 년 근무한 직장을 뒤로 한 지 13년의 세월은 온통 상처뿐이었어요. 퇴직금을 택시회사에 투자했다가 돌려받느라 마음고생 한 일, IMF 외환위기 때 불안심리 때문에 집을 헐값에 팔아 손실을 자초한 일을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 원금이 반토막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해약해 적지 않은 손해도 봤고, 친구의 다단계 판매에 휘말려 돈을 고스란히 날리기도 했습니다."

### 세 자녀들도 상속 포기에 흔쾌히 동의

기씨는 과거와 같은 투자를 탈피하고 안정된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기씨가 택한 방법은 주택연금(일명 '역모기지론')이었다.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타는 방법이다. 2007년 7월 출범한 주택연금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2천9백36건(약4조원)을 기록했다. 기씨는 텔레비전에 '진정한 효자—주택연금'이란 광고를 통해 주택연금을 알게 됐다고 한다.

"퇴직 후 다니던 보험손해사정 회사에서 급여를 조정하겠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처지도 아니어서 난감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씨는 자녀 3명을 불러 '가족회의'를 했다. "너희 어머니를 먼저 떠나 보내고 건강유지와 취미·종교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용돈을 안 받겠다. 대신, 집을 물려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장남 봉철씨는 "자식들도 마음이 오히려 더 가볍다"면서 "자녀들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주택연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상담을 했다. 기씨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연금 대출이자의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미심쩍은 점이 사라졌다"면서 "게다가 생활비로 쓰고 남은 일정금액을 예금보호가 가능한 은행에 적금으로 저축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씨는 5억1천5백만원(주택금융공사 감정가)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지난해 2월부터 매달 약 1백6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기씨는 "친구모임이나 자식들 집에 가더라도 돈을 써야 대접을 받는다"면서 그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밝아졌다"고 말했다.

### 5억여원 아파트 담보로 매달 1백67만원 받아

주택연금을 받은 뒤 그의 삶은 확 달라졌다. 남는 돈으로 하모니카·색소폰 레슨을 다시 받기 시작했고, 민요·서예교실에도 등록했다. 그는 얼마 전 모임에서 지었다는 '버팀목'이란 시를 들려주었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들이여/우물쭈물하다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네/직장에서 일하고 남은 보람들 다 어디 가고/나와 보니 모든 게 허탈하고 통장도 슬슬 새네/내 삶이 힘들고 궁핍하여/자식에게 줄 것 변변치 못하면/어느덧 천덕꾸러기/뒷방 늙은이같이 된다네/심한 우울증과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물려줘야 할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지금 이 순간 내몸 아파 힘들면/효자가 따로 있나/홀로 설 수 있게 하는/그건 나의 버팀목/이 생명 다할 때까지 지켜줄/그대, 고마운 주택연금이여"

기홍철씨는 "1백세에 죽을 때 70세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차라리 집을 연금화하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게 진짜 상속"이라고 말했다. G

글·오동룡 기자

**주택연금 궁금증 A to Z**

### 자녀가 집 있어도 부부 명의 1주택이면 가능

**부부 명의로 1채, 자녀 명의로 1채를 갖고 있다.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1주택자 기준은 부부만이다."

**어떤 주택을 담보로 잡나**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독·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안 된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 없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보로 잡은 집을 팔 수 있나**

"가능하다. 매매하면 새로 산 집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된다면**

"관계없다. 처음 가입할 때만 1주택자이면 된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은 꼭 처분해야 하나**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한 후 연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집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대출금(연금수령액)을 갚는 조건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 www.hf.go.kr ☎1688-8114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15년 농촌컨설팅 경험 인정받았네요"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한 정진영씨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이 꿈"

공무원도 '경력'으로 뽑는 시대다. 각 부처의 부족한 전문 인력을 민간 전문가 출신으로 채용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 15여 년간 농촌현장을 발로 뛰며 농업컨설팅을 해 농업인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의 정진영(39)씨도 이번 특별채용에서 당당히 합격했다.

이경민 기자

농촌에서 나고 자라 농업컨설팅 관련 분야에서 15여 년간 일해온 정진영씨. 그는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에 당당히 합격했다.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 '경력'을 우선시해서 선발을 한다니 꼭 한 번 도전해보고 싶었죠."

현재 농협중앙회 농업경원지원팀에 근무하는 정진영씨는 이제 곧 5급 공무원이 된다. 정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에 지원해 최종합격했다.

정씨는 "필기시험만 잘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까지 농업현장에서 발로 뛰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자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자신감과 실력으로 정씨는 최종관문을 뚫었고 오는 4월 농촌진흥청으로 배치되어 10주간 공무원 기본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농업경영 지도·지원 사업을 개발하는 농업연구관으로 일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농촌과 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정씨는 농촌에서 나고 자랐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터라 정씨는 어릴 때부터 일손을 거들었다. 정씨의 장래희망은 '농협조합장'이었다. 어린 시골소년의 눈에 농협조합장은 가장 멋지고 높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 4월부터 농진청에서 농업연구관으로 근무

자연스럽게 정씨는 대학에서도 농업경제학을 전공했다. 일찍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정한 정씨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의 농촌사랑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도 계속되었다.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연구조교와 농식품부 정보화 교육 팀장 등 농촌에 대한 업무를 경험했다.

"그 당시 IMF 외환위기가 벌어지면서 한창 농촌사정이 안 좋아질 때였습니다. 파산하는 농가가 많았죠.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농촌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촌을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곤 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식품부, 농협 등 기관의 사업(연구 용역)에 참여한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농산물가공업체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제조, 마케팅 등 경영체의 관리업무도 익혔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니 이론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거나 융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경험으로 극복 가능"

2005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씨는 지방 출장이 잦다.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농업금융컨설팅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늘 바깥으로 다니다 보니 몸이 고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직접 농업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 누구보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농촌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농가를 찾아가 금융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컨설팅을 합니다. 상담을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제도도 있었냐?'며 좋아하시죠."

그렇게 정신없이 전국의 농촌을 다니던 중 정씨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가까이 농업관련 업무를 하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은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정씨는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용방식이 무척 반갑다"고 말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정씨는 2차 서류심사를 위해 이제까지 자신이 했던 업무를 차근차근 정리했다.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농촌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꼼꼼히 적었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정씨는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하고 지난 1월 당당히 최종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농가를 찾아 농업금융관련 상담을 하는 정진영씨. 그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농업 경영·금융·기술 지원 연계에 노력"

"제가 해오던 일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각 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적 농촌지도주체인 농촌지도기관이 큰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씨는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십분 활용해 발로 뛰어다니는 공무원이 되겠다"며 더불어 "그동안 경영과 금융지원, 기술지원이 분산돼 지원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G

글·손수원 기자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채용목적** 각종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의 현장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함.

**지원자격** 선발 직무분야별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① 경력 : 팀장급 이상 관리자 경력 3년, 직원 경력 10년 이상(신설)
② 학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 + 4년 연구 경력자(신설)
③ 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소지 후 일정기간 근무자

**채용절차** 1차 필기시험+2차 서류전형+3차 면접시험

**채용일정**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 올해 채용 분야 및 시험일정 공고는 3월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재. 1차 필기시험 6월말 예정. **문의**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 ☎02-2100-8558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영화 〈하울링〉에서 생계형 형사 연기 송강호

# "조연? 상관없어요, 영화만 좋으면"

"걸어가는 것, 뒷모습, 하다못해 귀 생김새까지도 모두 형사였다." 배우 최민식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박두만'으로 분한 송강호를 이렇게 기억한다. 당대 최고의 배우로 손꼽히는 최민식에게 이런 극찬을 받을 연기자가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될까. 그 송강호가 다시 형사로 돌아왔다.

조선DB

송강호는 영화 〈하울링〉에서 무심한 듯 다정하고, 진지한 듯 유쾌한 특유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한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 송강호에게 '조연 캐스팅'이 들어왔다. 제목은 〈하울링〉. 늑대개의 연쇄 살인을 다룬 영화로, 이야기는 교통경찰 출신 신참 여형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송강호에게 들어온 배역은 신참 여형사의 수사를 돕는 생계형 형사 '상길' 역이었다.

〈하울링〉의 연출을 맡은 유하 감독은 지난 2월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강호씨가 비중이 작은 역할을 선뜻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유 감독은 "처음 제작자가 시나리오를 송강호씨에게 준다고 했을 때 (거절당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거절당하면 나중에 그걸 핑계 삼아 송강호씨에게 한 번 더 작업을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비중보다 영화 속 이야기가 좋았어요"**

영화에서 극을 끌어가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던 그가 상대 배우 은영(이나영 분)을 '받쳐주는' 배역을 연기한 소감은 어땠을까. 송강호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상길 역할이) 조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적은 분량이었다"며 "그나마 촬영하면서 다듬다 보니 투톱 형식의 영화가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비중을 떠나서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마음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미물에 가까운 짐승과 가녀린 여형사가 우리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사회적 폭력에 맞서다는 것. 그래서 아픈 곳을 치유하고 나중에는 삶의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중을 떠나서 그냥 영화가 좋았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송강호가 '진짜 배우'임을 알 수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가 조연급 역할을 연기하겠다고 나서기란 쉽지 않다. 자칫 영화 관계자들이나 관객들로 하여금 '송강호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자신의 입지를 평가절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댓시네마

〈하울링〉은 범죄 수사극을 표방하지만 한편으론 인간드라마에 가깝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계산'에는 관심이 없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작품 그 자체다. 그렇기에 역할의 크고 작음은 그에게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울링〉의 상대 배우 이나영은 "송강호 선배님과 함께 작업하는 순간순간이 영광스럽다. 그가 상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영화를 선택하고 싶은 이유가 된다"고 말한다. 이나영은 "하울링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었다"며 "그러나 송강호 선배님이 옆에 계셨기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강호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줬다"는 것이다.

**상대 배우 역량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파트너**

송강호는 상대 배우의 잠재 역량과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파트너로 손꼽힌다. 〈푸른소금〉에서 송강호의 상대 배우로 열연한 신세경은 "송강호 선배는 혼자 돋보이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로 지도를 잘해주셔서 배운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영화 〈밀양〉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전도연도 "종찬(송강호 분)이 있었기에 신애(전도연 분)라는 인물이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다"며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의 영광을 송강호에게 돌리기도 했다.

영화에서 배우들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 아무리 뛰어난 연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강호는 자신의 연기뿐 아니라 상대 배우의 연기까지 조절할 줄 아는 천생 연기자다.

영화 〈하울링〉은 사건에 집착하는 형사 상길과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려는 신참 형사 은영이 파트너가 돼 늑대개 연쇄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내용의 수사극이다. 번번이 승진에 실패하며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상길은 늑대개 살인사건이 서러운 형사 생활을 한 방에 바꿔줄 기회임을 직감하고 수사에 매달린다.

**"소수자의 소리 없는 울부짖음이 들리나요"**

송강호는 외로움과 고달픔에 몸부림치면서도 따뜻함은 결코 잃지 않는 만년 형사 상길을 매력적으로 그려낸다. 무심한 듯 다정하고, 진지한 듯 유쾌한 송강호 특유의 화법은 여기서도 살아 있다.

〈하울링〉은 범죄 수사 스릴러를 표방하지만 사실 인간드라마에 가깝다. 영화에 등장하는 '질풍'이라는 늑대개는 늑대도, 개도 아닌 존재로 어떤 세계에도 완벽히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과 같다. 두 주인공인 상길과 은영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인이자 소수자다.

유하 감독은 "〈하울링〉은 괴수 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울링〉은 "주변의 흔한 이야기들을 늑대개라는 특수한 피사체를 통해 들여다보려고 한 가족 영화"다. "상길, 은영, 그리고 늑대개.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울링〉은 이들의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글·박소영 (주간조선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월 6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걷는 2백18킬로미터의 희망로드 걷기 행사에 참가한 성기홍 본부장(뒷줄 가운데)과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평창의 올림픽정신 걷기로 보여줬어요"

## 강추위 뚫고 엿새동안 평창~서울 2백18킬로미터 '희망로드 걷기 행사'

성기홍(51)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은 '걷기 전도사'다. 지난 25여 년 동안 걷기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얼마 전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엿새 동안 2백18킬로미터의 '희망로드'를 걸었다.

"평창이 보여준 도전과 결실을 향한 올림픽 정신을 걷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기홍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한국워킹협회 이사장)은 얼마 전 걷기 마니아 10명과 함께 '대단한 도전'을 감행했다. 지난 2월 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를 출발해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6일간 2백18킬로미터 거리의 길을 걸은 것. 2백18킬로미터의 거리는 '2018년'을 의미한다.

성 본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6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2017년 2월에 열리는 프레올림픽(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전 시설이나 운영 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비공식 경기)을 감안하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번에 걸은 길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희망로드'"라고 말했다.

희망로드 걷기 행사에서 성 본부장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남한강을 경유하면서 '저탄소 그린워킹'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함께 참여

희망로드 걷기 행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로 구성되었다. 가장 고령의 참가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신익제(60)씨다. 26세의 대학생 홍유미씨와 이지민씨가 막내였다.

이처럼 각기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걷기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관심 고조와 걷기 확산'이라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성 본부장의 희망로드에 동참해 무사히 완주했다.

이 행사의 '대장'인 성 본부장은 한국워킹협회 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25여 년 동안 걷기에 애정을 쏟은 사람이다. 그가 걷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포츠신문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국보행연맹의 한갑수 선생을 만나면서 걷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한국보행연맹은 우리나라에 걷기 운동을 처음으로 알린 단체다. 한 선생과의 인연으로 성 본부장은 한국보행연맹의 홍보이사를 맡았다.

"1987년 일본에서 매년 열리던 IML국제걷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참가하더군요. 그것도 참가비를 내면서 말이에요. 돈을 내면서 걷는 행사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 붐이 일었지만 걷기를 스포츠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걷기운동을 대중화시키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걷기문화를 국내에 뿌리내리기 위해 인생의 승부를 걸었죠."

### 외국 서적 번역 등 '걷기 전도사'로 맹활약

이후 성 본부장은 걷기에 대한 연구논문을 비롯해 외국의 걷기 관련 책을 번역한 걷기운동 서적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다〉, 〈다이어트 워킹〉 등의 책을 내며 명실상부 '걷기 전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성 본부장이 일본에서 걷기운동을 보고 어색해했던 것처럼 사람들 또한 걷기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았다.

그런 인식을 조금씩 바꾸게 된 것이 2001년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프로그램이었다. 성 본부장이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해 걷기의 효능에 대해 다루면서 국민들이 하나둘씩 걷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성 본부장은 그해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를 전국 조직으로 창립했다. 그리고 수석부회장을 맡아 파워워킹과 마사이워킹을 도입해 전 국민에게 공급했다.

2003년 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마사이족처럼 걸어라〉 편이 방영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워킹화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여기저기서 걷기운동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다. 전 국민적으로 걷기열풍이 시작된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한파를 뚫고 희망로드를 걷고 있는 성기홍 본부장과 참가자들.

성 본부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걷기운동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그해 5월 개최한 '청계천 고가 걷기대회'는 3만5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후 열린 '청계천 미리보기 걷기대회'와 '청계천 완공 걷기대회'도 모두 성 본부장이 앞장선 행사다. 걷기 관련 저술활동에도 집중해 2004년 낸 〈걷기혁명530, 마사이족처럼 걸어라〉는 그해 겨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 제주 올레길 등 생기며 걷기운동 자리잡아

한번 불붙은 걷기 열풍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2005년부터 지자체들이 하천정비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올레길과 둘레길 등을 조성한 것. 특히 2007년 9월 제주 올레길이, 2008년 봄엔 지리산 둘레길이 선을 보이면서 걷기운동은 명실상부 국민웰빙운동으로 자리잡았다.

"지금은 걷기가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바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희망로드지요. 저는 걷기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니 일종의 '재능 기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성 본부장은 "앞으로 걷기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기 붐도 일으키고 싶다"며 "수명 1백세 시대를 맞이할 미래에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스포츠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4월에 열리는 '제6회 투르 드 코리아' 대회를 국가적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글·손수원 기자

전국을 다니며 야생 동·식물 사진을 찍던 오영상씨는 3년전 해남으로 귀농해 고향의 자연을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 귀향 보고서… 고향의 동식물을 담다

## 사진기자 출신 오영상씨, 생태보고 〈땅끝 해남의 자연자원〉 펴내

돌담 아래 핀 꽃을 사진에 담고도 그 꽃 이름조차 몰랐던 청년기자는 세월이 지나 생태전문가가 되었다. 이제는 들꽃 한 송이, 새 한 마리도 선뜻 지나치지 못하고 기어이 그 이름을 불러주어야 직성이 풀린다. 오영상(52)씨는 길에서 만난 이 수많은 동·식물들을 모아 책에 담았다.

오영상씨는 3년 전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온 '귀농기자'다. 오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17년 동안 광주에서 일간지 사진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그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오씨는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그만두기 전 제 인생의 2막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 고향으로 돌아가 생태체험농장을 만드는 것이 떠오르더군요. 나무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탐방로를 만들고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요.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해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009년 말 오씨는 바람대로 해남으로 귀농했다. 오디와 매실 등 나무를 심고 배추, 무, 땅콩 등의 작물을 기르며 농사일을 배웠다. 자연해설을 하기 위해 산림청의 숲 해설 과정도 이수했다. 마침 22년 된 지역신문사에 편집국장 자리가 비어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주중에는 신문사에 근무하고 주말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중이라도 이식한 묘목에 물을 줘야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갔다가 회사에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농사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오씨는 여기에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있다. 생태사진을 찍는 것이다. 오씨는 야생 동·식물에 관한 책을 낸 생태전문가다. 국내 야생화와 야생조류 사진 분야에서 꽤 유명해 수차례 생태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그런 그도 20여 년 전엔 꽃이나 새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자연 문외한'이었다.

"1990년 봄, 무너진 돌담에 핀 노란 야생화가 예뻐 보여 실컷 촬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꽃이 민들레더라고요. 흔한 꽃 이름조차 모르는 지역 일간지 기자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 야생 동·식물 찾아 전국 오지는 거의 다 가봐

오씨는 이때부터 각종 식물도감을 읽으며 꽃의 종류를 익히고 전국의 산하를 누비며 야생화 사진을 찍었다. 야생화가 없는 겨울에는 철새를 촬영했다. 한때 스포츠신문사 사진기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속사 촬영이 생명인 조류사진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찍은 생태 사진을 골라 2002년에는 〈무등산 야생화〉, 2004년에는 〈전라도 탐조여행〉을 책으로 냈다. 민들레도 모르던 기자가 생태전문가로 변신한 것이다.

야생 동·식물을 찾아다니다 보니 전국의 오지란 오지는 거의 가봤을 정도다. 날아다니는 새를 찾아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황새는 경계심이 많아 한번 도망가면 30~40킬로미터는 족히 이동합니다. 때문에 간척지에서 황새를 촬영하려면 하루에도 비포장길을 1백여 킬로미터나 달리기도 하지요."

위험한 순간도 많았다. 한번은 개답공사가 완료되기 전 해남 간척지에서 황새를 촬영하다가 차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 워낙 오지다 보니 휴대전화도 불통이라 20여 리의 거리를 걸어 나와 구조요청을 했다. 밀렵꾼으로 오인을 받아 경찰이 출동한 적도 많다.

"카메라에 6백밀리미터 렌즈를 끼우고 새를 촬영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총을 쏘는 밀렵꾼의 모습이거든요. 온갖 사진 장비에 몰골도 말이 아닌 때가 많아 불심검문도 많이 받습니다."

3년 전 해남으로 온 후에는 노트북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고장나 70기가바이트나 되는 사진파일을 몽땅 날리기도 했다. 2년여에 걸쳐 발품을 팔아 사진을 다시 찍어 모았다. 하지만 일부 희귀 동·식물은 다시 찾지 못해 사진을 찍지 못했다. 오씨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오영상씨가 전국을 돌며 사진에 담은 야생 동·식물의 모습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창오리 군무, 검은머리물떼새, 각시붓꽃.

얼마전 오씨는 또 한 권의 책을 펴냈다. 해남의 동·식물을 꼼꼼히 기록한 생태보고서인 〈땅끝 해남의 자연자원〉이 바로 그것이다.

### 2백51종의 동·식물 4백50컷의 사진에 담아

"고향인 해남의 자연자원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귀농해보니 고산유적지, 대흥사, 녹우당 같은 문화자원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고천암 가창오리나 두륜산 대흥란 같은 자연자원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저 스스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자연자원을 정리하는 데 나서고 싶었습니다."

오씨가 펴낸 이 책에는 해남에 서식하는 나무와 들꽃 1백16종, 텃새와 철새 98종, 나비와 곤충 12종 등 모두 2백51종의 동·식물 이름과 학명·분포 등이 자세히 실렸다. 4백50컷에 이르는 사진은 오씨의 정성과 노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팔색조, 소쩍새, 독수리, 수달 등 천연기념물 10여 종의 모습은 귀한 생태자료이다.

오씨는 "앞으로도 미처 사진에 담지 못한 해남의 자연자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귀농할 때 구상했던 생태체험농장을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의 꿈이다. G

글·손수원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캄보디아에 과학교육시스템 전수하다

## 교육과학기술부, 프놈펜 왕립대에 한국식 '우정연구실' 설치

경제 발전과 급속한 성장을 위해 간절하게 필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잠재적인 고급 두뇌 집단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은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과 교육 경험을 전수받으며 한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고 있다.

앙코르 와트의 위용과 킬링필드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 캄보디아. 영광과 한(恨)이 공존하는 캄보디아에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이어 과학 한류가 상륙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있는 프놈펜 왕립대(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에 한국식 물리학·생물학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업하는 2개의 최신식 연구실이 설치됐다.

프놈펜 왕립대 우정연구실(Friendship Laboratory) 개소식이 지난 2월 3일 프놈펜 왕립대에서 거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프롬펜 왕립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 및 학생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서강대에서 파견한 교수와 대학원생 8명도 참석했다. 우정연구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분야 대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서강대가 추진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부터 지원한 서강대의 '인도차이나 선도국립대학 기초과학 인프라 구축' 과제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고등교육 시스템이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과학기술 시스템'을 전파하고 있다.

### 서강대서 실무사업 맡아 교수 등 파견

사업 시행자인 서강대는 2010년 1월 분석화학 실험을 위한 제1차 우정연구실을 개설한 데 이어, 2011년 1월에는 4명의 교수와 1명의 대학원 조교를 파견해 관련 4개 과목을 신설했다. 2012년 1월 29일부터 물리, 화학, 생명과학 분야 7명의 교수와 2명의 대학원 조교를 파견해 프놈펜 왕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강좌 8과목을 개설하고 교수들을 상대로 교수법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발도상국 대상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된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의 생물학연구실. 프놈펜 왕립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원생이 실행하는 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서강대)

1960년에 문을 연 프놈펜 왕립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명문대학. 캄보디아의 내일을 짊어질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캄보디아 유일의 종합대학이다. 하지만 제대로 훈련된 교원과 연구 장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대, 경영대, 의대를 제외한 기초학문 위주로 전공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는 1인당 연소득이 7백50달러(2010년, 월드뱅크)로 아시아 최빈국에 속하며 기초과학 교육시설, 과학기술의 기반이 거의 전무하다. 캄보디아의 문맹율은 65퍼센트나 되며, 고등학교 졸업률은 28퍼센트에 불과하다.

우정연구실의 물리학 실험실은 오실로스코프(브라운관을 사용하여 변화가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기구)와 각종 기초 광학 및 전자기학 실험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물학 실험실에는 현미경 및 전처리 장비·도구, DNA 전기영동장치 등이 갖춰져 있다.

서강대 자연과학부 박광서 학장은 "우정연구실이 캄보디아의 교육한류를 이끄는 핵심시설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초과학 분야의 교육시스템을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역에 전수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방학 때마다 프롬펜 왕립대에 가서 강의를 해온 서강대 화학과 신관우 교수는 "첫 수업에서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의 열의에 충격을 받았다"며 "수업을 마친 후에도 한국 교수들을 따라다니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의 열성에 가르치러 간 우리가 오히려 배워올 정도"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 열의에 감동받아"

캄보디아는 과거 폴 포트 정권 시절 고교 이상 졸업자의 70퍼센트가 학살당해 고등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다. 프놈펜 왕립대 교수 대부분이 학사 출신이며, 석사 출신 교수는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 그러다 보니 한국 교수진이 수업을 하면 학생들과 함께 현지 교수들도 함께 강의를 듣기도 한다고 신 교수는 전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보면 과거 우리의 197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험실 만들고 강의하고 오면 된다는 생각에 찾아갔는데 그쪽에서는 기대가 커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개도국 학생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과 같이 발전하길 꿈꾸는 캄보디아의 인재들이 프놈펜 왕립대에서 한국 교수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다. (서강대)

서강대는 국고에서 지원된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 1백여 종(시가 4천5백만원) 이외에도,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재 및 유휴장비 10여 종(시가 3천만원 상당)을 우정연구실에 기증했다. 또 현지 강의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돈을 모아 학기당 3명의 프놈펜 왕립 대학생들에게 각기 2백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올해도 70여 기관의 1백50여 과제 접수 받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개도국과 실질적 상호협력을 해나가기 위해 2006년부터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기술협력, 과학기술 교육과정 개발·교육 등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3개국에 15개 프로젝트, 2010년 10개국에 15개 프로젝트, 2011년 10개국 10개 프로젝트 등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공계 우수 인력이 개도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씨앗을 틔우고 있다.

총 8억원이 투입되는 2012년 사업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1월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70여 개 기관 1백50여 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2배가 훨씬 넘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와 국가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토대로 2월말까지 2012년도 개도국 과학기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경 사업공고를 내 사업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 헉! 입산금지?… "주말 산행 망칠 뻔했네"

## 봄철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2월 16일~5월 11일 출입통제

40대 회사원 이씨는 주말 산행에 나섰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탐방로가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등산을 계획했던 이씨는 산 문턱까지 와서 허탈하게 쓴웃음만 지어야 했다.

봄철 산불방지와 해빙기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 탐방로가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기간은 공원별로 달라… 홈페이지 확인을**

탐방로 통제기간은 2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시기상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과 겹친다.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원 탐방 시 해당 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통제기간은 공원별로 상이하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의 통제기간은 3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지리산, 계룡산, 한려해상,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가 통제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산행에 나설 경우 헛걸음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총 4백83구간(약 1천6백77킬로미터) 중 1백24구간(약 6백33킬로미터)이다. 지리산의 노고단~천왕봉, 의신마을~세석평전, 설악산의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장수대, 오대산의 상원사~두로령, 소금강~동피골 등이 주요 통제구간에 속한다. 이밖의 통제구간은 국립공원 홈페이지 및 해당 국립공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탐방로 통제를 어길 시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돼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개 국립공원 1백24개 구간 탐방로에 대하여 2월 16일부터 단계적으로 통제를 실시한다. 또 통제구간별 탐방로 입구에 통제간판을 설치해 탐방객들에 통제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 최수원(34) 주임은 "봄철 산불방지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탐방로를 통제한다"며 "탐방객들도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G 글 · 김아슬 인턴기자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www.knps.or.kr

**주요 탐방로 통제기간**

| | 통제구간 | 통제시기 |
|---|---|---|
| 지리산 | • 노고단~천왕봉<br>• 의신마을~세석평전 | 2월 16일~4월 30일<br>문의 055-972-7771 |
| 설악산 | • 마등령~한계령<br>• 황장폭포~장수대 | 3월 5일~5월 11일<br>문의 033-636-7700 |
| 오대산 | • 상원사~두로령<br>• 소금강~동피골 | 3월 5일~5월 11일<br>문의 033-332-6417 |





# 창신동 문구시장… "와~ 정말 싸네요!"

## 1백20여 점포 밀집… 입소문 타고 새학기 학용품 준비 학부모들 몰려

"새학기를 앞두고 학용품을 사러 나왔어요. 일반 문구점이나 마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싸긴 싸네요."

주부 이상미(38 · 노원구 창동)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종로구 창신동 문구 · 완구 도매시장을 찾았다. 그는 학교에서 나눠준 '준비물 목록'을 보며 공책과 색연필, 크레파스, 필통, 실내화 등을 골라 담았다. 각 학용품에 적힌 소비자가 기준대로라면 4만원 정도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던 주인은 "2만8천원"을 불렀다.

'문구 · 완구 거리'로 불리는 창신동 문구 · 완구 시장은 197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문구 · 완구 전문 도매시장이다. 골목 안쪽으로 약 1백20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도매판매 위주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소매판매도 하고 있다. 창신동 문구 · 완구 전문 도매시장은 천호동이나 남대문 문구상가에 비해 필요한 상품들을 잘 갖춰놓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점포가 문구 · 완구류를 약 30~40퍼센트 할인가에 판매해 할인폭도 큰 편이다.

이곳의 제품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유통과정을 줄이고 재고상품을 대폭 할인 판매하기 때문이다. 모닝글로리, 모나미 등 국산문구와 완구류 외에 수입품도 취급하고 있어 실속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다. 요즘엔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더 알뜰하게 학용품을 장만하고자 하는 주부들이 몰리면서 일대는 더욱 붐비고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아침부터 자녀의 학용품 등을 구입하러 창신동 문구 · 완구 시장을 찾은 주부들. 창신동 문구 · 완구 시장은 소비자가 대비 30~40퍼센트 할인가에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30~40퍼센트 할인… 국산문구 · 완구 외 수입품도**

신학기에는 공책, 필통, 필기구, 실내화 등이 베스트셀러다. "공책이나 연필 등 간단한 학용품을 나눠주는 학교도 있지만, 아이의 취향을 고려해 따로 구입해 가는 주부들도 많다"는 게 예지사를 운영하는 오세인 사장의 말이다.

"요즘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게임 캐릭터인 '앵그리 버드'가 인기라 관련 문구류가 잘 팔린다"고 덧붙인다. 20년 동안 2대째 영업중인 경인문구를 비롯해 예지사, 계문사, 삼화문구 등이 학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다.

종로문구교재처럼 과학교재나 음악교재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나, 우리체육사처럼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용 안전가위나 연습용 젓가락인 '에디슨젓가락', 빨대컵, 우산, 가방, 수영복, 구명조끼 등도 골목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단, 학생용 가방이나 실내화주머니 등은 다양하지 않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신학기 특집전'과 맞물려 매출이 저조해 가방 등은 창신동 문구 골목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상인들의 말이다.

'창신동 문구 · 완구 도매시장'은 동대문역 4번 출구로 나와 신설동 방향으로 20미터 지점, '독일약국' 골목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점포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7시에 폐점하지만 도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대개 5시만 되면 문을 닫는 분위기다. 좁은 골목에 일방통행 길이라 차량 진입은 어려우니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G 글과 사진 · 박근희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가 단말기와 통신사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된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 통신사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디지털매장에서 태블릿PC를 살펴보고 있다.

# 4G시대 '모바일 인터넷 전화'로 가야

## 국내 통신사들, 물리망 위주 사업정책 포기하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포털을 만들 예정이다. 사용자들이 통신사들의 요금을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정책 입안자라면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와 통신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근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인 4천만명 이상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중 2천만대 이상이 스마트폰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는 스마트폰을, 자녀들은 일반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자녀들도 곧 스마트폰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은 기기 값이 비싸 거의 다 할부 약정으로 쓰고 있어 한 달에 최소 6만원 이상이 빠져 나간다. 추가적인 음성 통화까지 감안한다면 한 가정에서 휴대폰 사용료로만 20만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집마다 유선 인터넷도 깔려 있고 집 전화나 인터넷 전화에 케이블 방송료 또는 IPTV 사용료까지 내고 있다. 여기에 TV 시청료와 신문 구독료까지 합치면 최소한 한 가정에서 30만원 이상 빠져 나간다.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는 책이나 음악 등을 문화비로 따로 계산하더라도 스마트폰의 유료 앱, 컴퓨터나 IPTV로 다운받아 보는 유료 동영상 구입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망, 무선 망 등 물리적인 선을 깔아놓고 월정액을 받아 가는 것은 세금과 같다. 통신사들은 오늘도 '사용자당 평균이익률' 올릴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물리망 자체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요금이 저렴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 배당금 잔치 속에 사용자 돈으로 통신망 구축

4G LTE가 되면서 요금 또한 올랐다. 4G는 속도가 빨라 동영상도 볼 수 있을 정도지만 3G에 있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전국 망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과도기인 탓에 3G와 4G 하드웨어를 모두 내장하느라 하드웨어 제조 원가도 비싼데 이 비용까지 모두 사용자 부담이다.

성능이 우수한 단말기는 4G용으로만 출시하고 있다. 단말기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3G 사용자에 대한 혜택도 없다. 최근까지 돈 주고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3G 유심을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려면 뻥튀기된 단말기 가격을 다 줄 수밖에 없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

통신사들이 4G 점유율 확대에 사활을 걸고 대리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를 위한 혜택은 전무하다. 완전한 데이터 통신인 4G에서는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데이터 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3G까지는 이들을 구분한 탓에 문자는 남고 음성은 모자라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4G에서는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애초에 2G 인프라 구축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통신사들은 3G와 와이브로 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4G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동통신망은 국가 기관시설이 아니다. 사기업인 통신사들의 미래 영업을 위한 시설 구축을 사용자들의 돈으로 해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 글로벌 사이버 통신사가 대세… 기회 선점을

통신사들은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지만 올해도 3사 합해서 총 2조가 넘는 돈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배당금을 망 구축 재투자로 돌린다면 4천만에 육박하는 사용자들이 기본료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당연한 시장 논리가 무시되는 것은 통신시설 구축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런 국민들의 애국심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의 통신요금 포털 구축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재판매하는 MVNO 사업자도 활성화시키고 제4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제5, 제6의 이동통신사도 허용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와이브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는 5월이면 사용자가 원하는 단말기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통신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는 한국에서 통신사들이 허용한 휴대폰만 쓸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했으나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휴대폰을 제외하면 어떤 폰이라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의 하드웨어 선정 과정의 횡포도 사라질 것이다. 단말기 제조사들끼리 자유롭게 하드웨어 성능 경쟁을 할 수 있고 유통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 통신요금은 경쟁을 통해 저렴해져야 정상*
*• 4G에선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구분 무의미 세 가지를 통합한 합리적 요금 선택할 수 있어야*
*• 와이브로에 관심 많은 이동통신사 추가선정 필요*
*•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용 제한 방치 땐 글로벌 인터넷업체에 국내음성통신시장 뺏길 수도*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미래를 보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4G에서는 음성 통화도 디지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동형 인터넷 전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벌써 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이 음성 통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광고 수입을 노리고 사용자 확보를 위해 음성 통화 자체는 무료로 서비스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신사들이 수익의 보전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함으로써 국내 포털과 같은 인터넷 업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에게 국내 음성 통화 시장도 내주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 대신에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하루빨리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고쳐야 한다. 그리하여 국내 업체들이 세계로 진출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사이버 통신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이들 업체에 투자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글로벌 통신사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통신요금 낮춰 인터넷 사용 더 활성화해야

점차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통신의 자유를 넘어 정보 접근권이 국민의 기본권화되고 있다. 통신 요금을 낮추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통신사들이 물리망 위주의 사업 정책을 고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통신 시대에는 국가 단위 통신사들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이 사용자를 많이 확보한 업체들이 중심이 되는 사이버 통신사가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물리망 위주 정책 포기는 통신사들이 이런 시대를 선도하도록 만드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G

글·김인성 (IT 칼럼니스트)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제주 동쪽 해안

# 연둣빛 바다를 타고온 봄이란 녀석 수줍게 유채꽃에 내려 앉았다

입춘이 지난 제주의 바다에 봄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봄은 원래 바다로 먼저 오는지라 담청색이던 제주의 겨울 바다를 조금씩 연둣빛으로 바꿔놓는 중이다.
섣부르게 대지에 도달한 봄기운은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장다리꽃을 피워 올렸고 하나둘씩 유채꽃망울을 터뜨려대고 있었다.
이른 봄을 만나려 달려간 제주, 그중에서도 동쪽 해안에서 보낸 기분 좋은 하루.

우뭇개해안에서 '물질'을 하고 올라온 해녀. 뒤쪽으로 성산일출봉이 펼쳐져 있다(왼쪽 사진). '아일랜드조르바' 앞 해변과 광치기해변에서 바라 본 성산일출봉의 일출.

흰 무명천을 담그면 쪽물이 들 것 같은 파란 바다가 있고 눈부신 모래사장 펼쳐진 멋진 해변이 있으며,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길이 펼쳐진 곳. 제주의 동쪽 해안 여행은 물빛 고운 함덕해변에서 시작한다. 서쪽의 협재해변과 더불어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정식 명칭은 함덕서우봉해변.

유난히 모래가 희어 하늘이 맑은 날엔 눈이 시릴 정도다. 9백미터에 이르는 백사장과 한참을 걸어 들어가도 허리춤밖에 오지 않는 얕은 바다가 있어 여름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대단히 북적이는 해변이다. 늘씬하게 선 야자수나무들과 빨간 등대가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주고 학꽁치 잡이에 여념 없는 강태공들로 여유로운 봄날의 풍경이 그려진다.

함덕을 지나면 곧바로 김녕해변이 나타난다. 바로 이곳부터 본격적인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시작할 수 있다. 군데군데 나 있던 몇 개의 해안도로가 이어져 동쪽 해안 대부분을 잇는 긴 해안도로가 탄생했다. 김녕해변에서 시작되는 이 해안도로는 행원리와 종달리, 성산일출봉과 신양 섭지코지, 온평리를 차례로 지나 삼달리까지 32킬로미터나 이어져 있다.

김녕을 지나 만나게 되는 월정리 바다는 이미 봄기운이 넘실댄다. 유난히 파란 바다와 그 바다색과 똑같은 색의 하늘이 있어 수평선 끝의 경계가 뒤섞여버리는 광경이 펼쳐진다. 여느 관광지와 달리 한적하기 그지없는 월정리 해변에서 딱 한 군데 붐비는 곳을 꼽으라면 해안도로가에 들어앉은 작은 카페, '아일랜드조르바'이다.

육지 출신의 세 여자들이 월정리 바다에 반해 카페를 차렸고 어느 날은 바닷가에서 춤을 추고 또 어느 날엔 쪽지 한 장 덜렁 써놓고 유람을 떠나고, 또 어느 날엔 지인들을 모아놓고 달빛 아래에서 파티를 열어대는 곳이다. 게다가 이 여자들이 어찌나 뻔뻔한지 월정리 바다가 제 바다인 양 의자 몇 개 해변에 늘어놓고는 "저기 앉아 바다를 보세요."라고 말한단다.

### 성산일출봉 · 섭지코지 품은 32킬로미터 해안도로

진하고 달달한 커피 한 잔 받아들면 그녀들이 귓가에 속삭이는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다. 여행자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놓는 이상한 바다가 틀림없이 그곳에 있다. 지금은 이곳 아일랜드조르바와 인근 평대리 마을 안에 같은 이름의 카페 등 두 곳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행원리의 풍력발전기 단지를 스치면 제주 바다의 어머니인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박물관과 만난다. 제주 최초의 전문직 여성인 해녀는 제주인의 삶의 근간을 지탱해온 중요한 사람

들이다. 해녀들은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제주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제주 항일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구좌읍 하도리의 제주해녀박물관에는 이런 제주 해녀의 역사와 삶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다. 제주 어촌의 모습과 세시풍속을 살필 수 있는 모형들과 태왁, 망사리, 빗창 등 해녀들의 작업 도구도 살펴볼 수 있다. 제3전시실에서는 동영상을 통해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관람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 아이들이 해녀 옷을 입고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해보는 어린이 해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성산 일대에 때 이른 유채꽃 하늘하늘

우도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종달리 해안의 끝자락에서는 해 뜨는 마을 성산과 만나게 된다. 참으로 뻔한 관광지이지만 동쪽 해안을 찾을 때마다 기꺼이 다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성산일출봉이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사계절의 모습이 다 다르고 어느 날엔 지독한 안개와 더 지독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창하고 상쾌한 날의 모습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은 지금으로부터 10만년 전 바닷속에서 수중 폭발해 솟아오른 화산체다. 원래는 섬이었으나 신양변의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육지와 연결됐다. 해발 1백82미터의 정상에는 지름 6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가 자리했다.

성산일출봉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어느 날의 신새벽에는 일출봉에 올라 제주에서의 첫 해와 대면하고 어떤 오후에는 일출봉 뒤편 우뭇개해안을 찾아 해녀들이 보여주는 소박하고 정겨운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또 어느 만연한 봄날이면 일출봉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지독하게 노란 유채꽃 위로 봉긋 솟은 일출봉을 눈에 담아본다.

성산 일대의 유채꽃은 제주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터라 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이미 노릇한 유채꽃이 초록의 잎줄기 위를 어른거리기 시작하고 3월 초순이면 성산 지역 대부분의 유채꽃이 만개한다.

성산일출봉과 어우러진 유채꽃 풍경의 정석은 섭지코지이다. 섭지코지에 한 거대 리조트가 들어선 이후 이곳의 아름다움이 망가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어쨌든 섭지코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행자를 맞이하고 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수식어답게 바람이 몰아치는 대로 이리저리 허리를 휘어 춤을 추는 유채꽃들 사이로 흰 등대와 교회 건물은 여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섭지의 바다를 끌어들여 설계한 '글라스하우스'와 명상센터인 '지니어스로사이'는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지니어스로사이에는 거대한 벽에 바람의 통로를 내고는 바다 건너 성산일출봉의 풍경을 액자처럼 볼 수 있게 한 멋진 작품이 있다.

섭지코지 등대에서 내려오는 길, 바람이 차지 않다(왼쪽 사진). 제주 해녀의 역사와 삶을 엿볼 수 있는 제주해녀박물관(오른쪽 위)과 고 김영갑 작가의 김영갑갤러리.

자전거여행으로도 좋은 김녕해안도로(왼쪽 사진)와 성산일출봉에서 내려다본 성산읍내.

섭지코지를 빠져나와 신양해변과 나란히 달리면 길은 제주 건국 신화의 공간인 혼인지가 있는 온평리를 지나 삼달리에 다다른다. 해안도로에서 잠시 벗어나 중산간으로 방향을 틀면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인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에 도착한다.

이미 제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겐 널리 알려진 곳으로, 고 김영갑 선생이 지난 2005년 루게릭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필름에 담아낸 황홀한 제주의 풍경과 만날 수 있다. 제주의 바람과 바다와 숲, 나무와 꽃, 구름이 담긴 그의 사진들이 뿜어내는 은은한 감동은 여행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맴돈다.

## 두모악엔 제주를 담은 김영갑갤러리도

낮은 돌담 아래 수선화 핀 갤러리의 정원 산책도 멋지다. 갤러리로 쓰이는 건물은 그가 굳어가는 몸을 이끌고 제자인 박훈일씨와 함께 폐교였던 삼달분교의 정원을 가꾸고 건물을 다듬고 제주의 바람을 초대해 만들었다.

이젠 스승이 떠난 갤러리를 지키고 있는 박훈일 관장은 얼마 전 갤러리 맞은편 밀감저장고에 '곳간, 섬'이라는 독특한 전시공간을 만들었다. 감귤 수확철인 겨울에는 원래 목적인 저장고로 사용하다가 그 외의 기간에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요즘은 작품 대신 저장고에 가득 쌓인 귤의 향기가 상큼하다.

고 김영갑 선생의 사진을 만난 후 다시 조우하게 된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답다. 나른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에는 해녀들이 뱉어내는 긴 숨비소리 가득하고 저마다의 이름을 가진 들꽃들은 바람의 노래에 춤을 춘다. 여행의 노곤함마저 감미로운 이곳, 지금 우리는 제주의 동쪽 해안을 달리고 있다. G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제주시에서 성산방향 1132번 일주도로를 이용해 조천까지 간 다음 조천읍사무소를 지나면 왼쪽으로 함덕서우봉해변과 연결되는 해안도로가 나타난다. 본격적인 해안 드라이브는 동복리를 지나 김녕해수욕장에서 시작한다. 길은 제주의 동쪽 해안과 닮은 모습으로 구불구불 연결된다. 삼달리에서 다시 1132번 일주도로와 만날 수 있다.

**먹을 곳** 바닷가 마을마다 꼭 있는 해녀의 집에 들러 전복죽이나 봄의 성게보말죽을 맛봐도 좋다. 동복리를 지난다면 싱싱한 생선회와 쫄깃한 국수가 만난 회국수 **해녀촌**(☎064-783-5438)을,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맞았다면 일출봉 아래 허름한 **경미휴게소**(☎064-782-2671)에서 끓여주는 문어라면이 좋겠다. 어머니의 손맛은 표선 **광동식당**(☎064-787-2843)에서, 셰프의 정교한 솜씨를 맛보고 싶다면 섭지코지 휘닉스아일랜드 내 레스토랑 **민트**(☎064-731-7000)를 추천한다.

**잠잘 곳** 제주는 예산과 취향에 따라 원하는 숙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동쪽 해안에는 섭지코지의 **휘닉스아일랜드**(☎1577-0069), 표선의 **해비치호텔&리조트**(☎064-780-8000)의 규모가 가장 크다.
호텔예약대행업체를 통하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다. 아름다운 종달해안도로 위에 들어앉은 펜션 **루마인**(☎064-782-5239)은 젊은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다. 남원의 **글라라**(☎064-764-2888)는 1인당 2만원 내외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아늑한 게스트하우스.

**즐길거리** 바다를 유랑하는 **요트 세일링**(☎064-782-5271)은 구좌읍 김녕해변에서 출발한다. 김녕 앞바다는 연중 2백일 이상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서식지다. 요트 세일링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여러 가지다. 해녀들이 채취한 자연산 해산물을 맛보거나 낚시 등을 함께할 수 있다. 성산에서는 잠수함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우도잠수함 제주 씨월드**(☎064-784-2333)는 성산항에서 출발해 우도 앞바다의 수중 세계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정보** 제주종합관광안내소 ☎064-742-8866
제주관광공사 www.ijto.or.kr, ☎064-740-6000

〈식량의 세계사〉

# 먹고사는 게 바로 문명사

톰 스탠디지 지음, 박중서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 1만6천8백원

"감자는 빈민의 빵이다."

이런 말을 한 이는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였다. 이 책의 저자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자신들의 생일 파티에서 감자 요리를 먹으면서 '시범'을 보이고 재배도 권장하는 등 '감자 대중화'에 앞장섰다고 주장한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에 전파된 감자는 그 뛰어난 효용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불길하다'는 인식 때문에 본격적으로 식량으로 쓰이지 않았다.

이 책은 '식량'을 키워드 삼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인류문명 발달사를 꿰뚫는다. 저자는 "농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1만년 전 신석기 시대의 인류가 만들어낸 '유전공학 작품'이 현재의 밀, 쌀, 옥수수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 자연 상태의 밀, 쌀, 옥수수 등은 어느 정도 여문 다음엔 가벼운 바람에도 우수수 낟알이 흩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말이다. 그래야 번식이 잘되기 때문이다.

인류는 익은 후에도 알갱이가 쉽게 흩어지지 않는 밀, 쌀, 옥수수의 종(種)을 따로 모아 재배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종은 인간과 서로 의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농업혁명'이다.

### "농사는 '유전공학'적 노력의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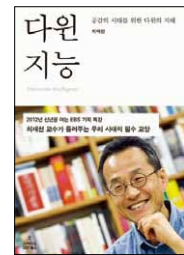
식량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등장한 문제가 향신료.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 역시 황금뿐 아니라 향신료 획득의 새 루트를 뚫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원래 목적만 따진다면 콜럼버스의 향신료 탐험은 실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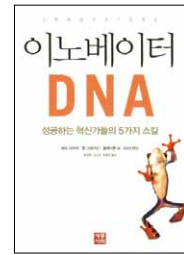
하지만 신대륙 탐험은 식량혁명에는 문자 그대로 신천지를 열었다. '국왕의 과일'로 불렸던 파인애플에서 구황작물로 각광받게 된 감자와 고구마, 토마토,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신대륙의 작물을 대거 유럽 등으로 옮겨 왔다. 반대로 신대륙으로는 커피, 설탕, 밀, 바나나가 유입됐다. 이른바 '콜럼버스의 교환'이다. 양 대륙은 서로의 작물을 받아 키우면서 식량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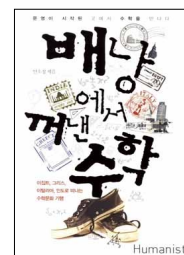
저자는 책 말미에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소를 소개한다. 철옹성 같은 이 종자 저장소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저자는 이 저장소에서 "신석기 시대의 메아리가 들려온다"고 말한다. 언젠가 어떤 이유로 인류가 문명을 처음부터 재건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문명의 맨 아래에 놓인 기반이 농업, 즉 식량과 먹고사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G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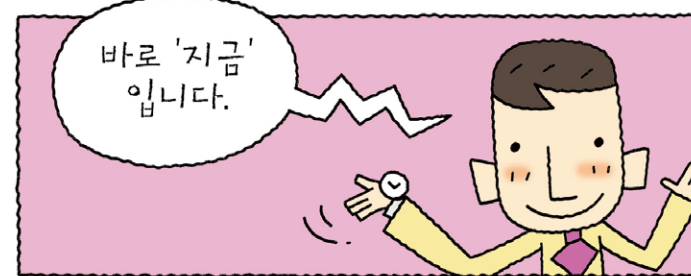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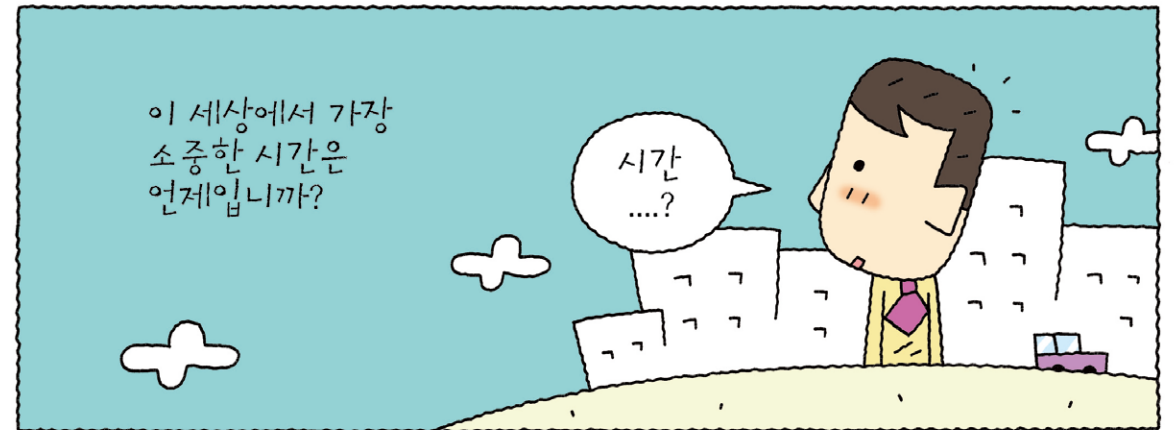
### 다윈지능
최재천 지음 | 사이언스북스 | 1만5천원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진화론을 통해 만나 본다. 이 책은 통섭의 지식인 최재천 교수가 현대 진화 이론의 핵심을 담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진화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뇌들의 설전부터 철학·법학·정치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에 걸쳐 생명이 일궈낸 사회현상을 진화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 앞에 산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준다.

### 이노베이터 DNA
제프 다이어 지음 | 세종서적 | 1만5천원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필두로 어떻게 세계적인 혁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어 혁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혁신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스킬과 세 가지 구성요소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질문하기, 관찰하기, 네트워킹, 실험하기, 연결하기의 다섯 가지 스킬과 사람, 프로세스, 경영철학의 세 가지 요소가 그것이다. 또한 저자는 혁신 능력은 유전보다는 학습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 배낭에서 꺼낸 수학
안소정 지음 | 휴머니스트 | 1만6천원

수학은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은 물론 인문·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수학이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수학을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세계 문명 발상지나 수학의 위대한 장소들을 찾았다. 여행기에 녹아 있는 수학 이야기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 독자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바로 지금…

글과 그림 · 최영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 법정

# 90개 화랑 '아트페어' 미술의 세계를 즐겨요

〈화랑미술제〉

2012 화랑미술제가 23~2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화랑미술제의 모습.

국내 아트페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화랑미술제가 코엑스에서 열린다. 화랑미술제는 미술의 대중화와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참가 화랑의 작가들을 발굴·지원하는 전시회다. 현재는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등 종합미술박람회로 성장하고 있다.

2012 화랑미술제에는 한국화랑협회 90개 화랑이 참여한다. 구성연, 강강훈, 강석현 등 젊은 작가를 포함해 김종학, 김창열, 민병헌 등 국내 유명 작가와 쿠사마 야오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등 해외 거장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미술행사뿐만 아니라 오페라 강연도 마련돼 있다. 〈오페라와 미술〉은 관람객이 적은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종합예술인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총체 예술인 오페라를 통해 미술과 음악의 조화를 보여주는 강연으로 진행된다. 아트페어가 낯선 사람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미술에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아트페어를 관람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G

정리·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2월 23~26일 **장소** 코엑스 **문의** ☎02-733-3708

| 공연명 | 장소 | 날짜 | 문의 |
|---|---|---|---|
| **뮤지컬** | | | |
| 우리들의 청춘 롤리폴리 | 성남아트센터 | 2월 25일까지 | 1544-1555 |
| 화려한 휴가 | 광주유스퀘어 | 2월 22일까지 | 1544-1555 |
| 카르마 | 가야극장 | 3월 31일까지 | 02-336-1289 |
| 6시 퇴근 | 대학로 스타시티 | 2월 29일까지 | 1544-1555 |
| 나를 부르다 | 대학로 아티스탄홀 | 2월 27일까지 | 1544-1555 |
| **연극** | | | |
| 행복 | 광주 우체국보험회관 | 2월 26일까지 | 1544-1555 |
| 발칙한 로맨스 | 대전 서구문화원 | 2월 26일까지 | 1544-1555 |
| 새끼손가락 | 예스24아트홀 | 2월 29일까지 | 1544-1555 |
| 안티고네 | 대학로 선돌극장 | 2월 26일까지 | 1544-1555 |
| 두 여자 | 대학로 가든씨어터 | 2월 26일까지 | 1544-1555 |
| **콘서트** | | | |
| 신화 콘서트 |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3월 24~25일 | 1544-1555 |
| 서울 라이브 뮤직 페스타 | 롤링홀 | 2월 25일 | 1544-1555 |
| 레이첼 야마가타 내한공연 | 블루스퀘어 | 2월 26일 | 1544-1555 |
| 밴드 뮤직 페스타 | 강동아트센터 | 2월 25일 | 1544-1555 |
| 이승철 콘서트 리퀘스트 쇼 | 경기도문화의전당 | 2월 25일 | 1544-1555 |
| 이승환 콘서트 | 올림픽공원 | 2월 29일~3월 1일 | 1544-1555 |
| 그린콘서트-짙은 | KT&G 상상마당 | 2월 25일 | 1544-1555 |
| **클래식/오페라** | | | |
|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예술의전당 | 2월 27~28일 | 1544-1555 |
| 아트엠 콘서트 | 가나 아트센터 | 2월 18일 | 1544-1555 |
|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 광주 문화예술회관 | 2월 19일 | 1544-1555 |
| **무용** | | | |
| 백해무익 오쏠로택 | 아르코예술극장 | 3월 7~8일 | 1544-1555 |

공연 **엘리자벳** 〈엘리자벳〉은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황실의 여인답지 않게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숱한 일화를 남긴 뮤즈, 엘리자벳의 일생을 다룬다. 이 뮤지컬은 무대미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1천4백여 개가 넘는 방이 있을 만큼 성대했던 황가 합스부르크의 호화로운 모습을 무대 위에 재현했다. 다양한 안무도 볼거리 중 하나다. 유럽 특유의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음악과 어우러진 군무를 선보인다.

**일시** 5월 13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문의** ☎02-6391-6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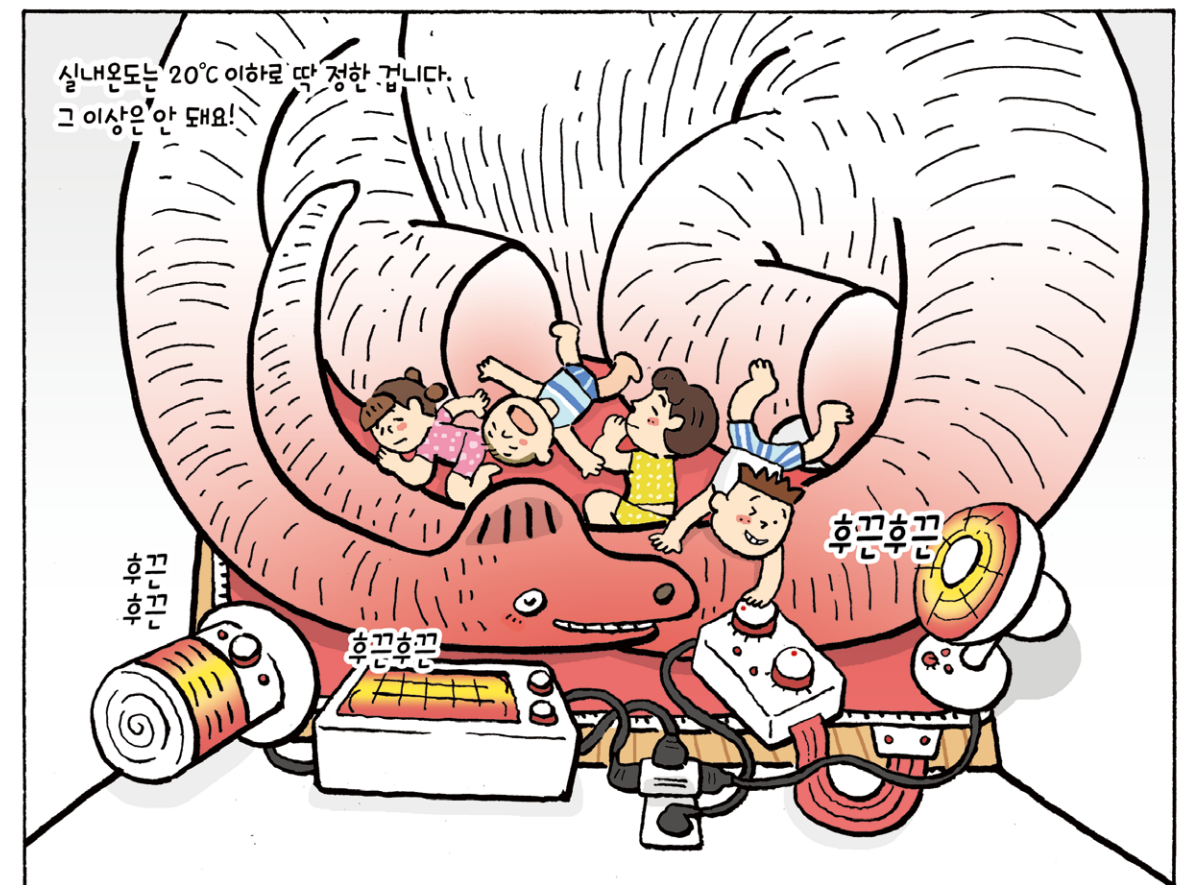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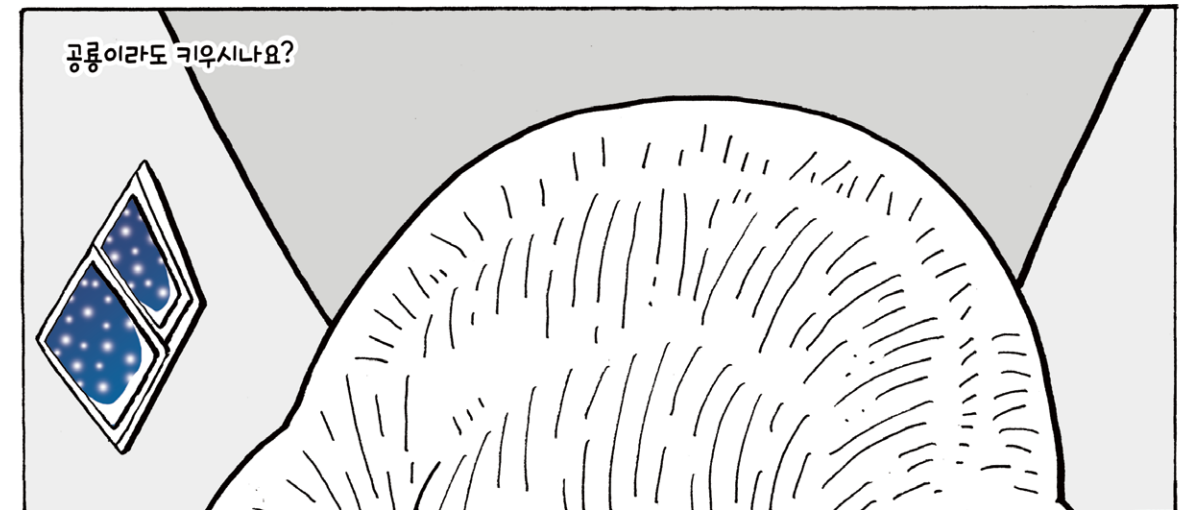
**2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월 29일~2월 4일)

| | 곡명 | 가수 |
|---|---|---|
| 1 | 내가 노래를 못해도 | 세븐 |
| 2 | 내가 싫다 | 케이윌 |
| 3 | 이럴 줄 알았어 | 비스트 |
| 4 | 지독하게 | F.T island |
| 5 | 시간을 거슬러 | 린 |
| 6 | Lovey-Dovey | 티아라 |
| 7 | 널 사랑하겠어 | 효린 |
| 8 | DIRTY | 미료(브라운아이드걸스) |
| 9 | Kiss The Rain | 이루마, 신용재, 美, BIGTONE |
| 10 | 베짱이 찬가 | 써니힐 |





# 주라기 홈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전력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 전력소비량이 큰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 내 겨울 점퍼를 누구에게 선물할까?

두툼한 점퍼가 하나 생겼다. 폭신폭신한 솜으로 누벼져 있고 풍성한 토끼털 모자도 달렸다. 거기다 방수까지 된다니 이 옷만 입으면 동장군이 설치는 엄동설한에도 끄떡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치수다. 내가 입으면 솜이불을 두른 듯 크고, 내 남편이 입으면 작아서 우리 집에선 무용지물.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옷인데 나는 입을 수 없고 남 주자니 배아프고, 변변한 고민거리조차 없이 대관령 산골짜기에 사는 나에게 마침내 고민거리가 하나 생긴 셈이다.

이 옷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얼핏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다. 기실, 나의 속마음은 누구에게 거저 주는 것보다는 자반고등어 한 손 값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었다. 이렇게 산골짜기에 흰 눈이 푹푹 쌓이는 날 화롯불 위 양은냄비에 잘 익은 김장 김치를 척~ 깔고 고등어 지짐이라도 해먹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다고 명색이 시인(詩人)이면서 강릉 시장판까지 가져가서 "옷 사시오!" 고래고래 소리치며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마을엔 선뜻 이 옷을 살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집 외양간 소 잔등에라도 덮어줄까? 아니면 강아지집에 깔아줄까? 아니야!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새옷이잖아!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을 하면서 하루이틀 겨울이 지나고 있었다. 설날도 지나고 한파주의보가 내린 어느 날, 산비탈에 사는 박씨 할아버지가 허름하고 얇은 점퍼를 입고 지나가시는 걸 보았다. 뛰어가 그 옷을 입혀 드렸는데, 어쩜! 그리도 딱 맞는지! 6·25전쟁 때 전차를 몰고 전쟁터를 종횡무진하였다는 할아버지, 지금은 외롭게 홀로 사는 박씨 할아버지에게 그 옷이 딱 맞는 것이었다.

일러스트 · 박용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빨리 한다. 그렇게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빨리 하면서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은 조금 느리고 게으른 듯하다. 나도 그랬다. 대관령 산골짜기에서 감자나 심어 먹고사는 내가 나눔에 관해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줄 때도 '빨리 빨리'

새 점퍼를 입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내가 그 옷을 입은 듯 마음까지 훈훈해졌다. 평소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살펴보았더라면 좀 더 빨리 옷의 주인을 찾아주었을 텐데 하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지난번 한파주의보가 내렸을 때도 따습게 입으셨을 텐데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빨리 한다. 오죽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보면 "빨리, 빨리"라고 하겠는가? 그렇게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빨리하면서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은 조금 느리고 게으른 듯하다. 내가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인 모양이다.

대관령 산골짜기에서 감자나 심어 먹고사는 내게 무슨 나눌 것이 있겠느냐, 나눔에 관해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딱 잘라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작거나 변변치 않은 것이라도 남 주기 아까워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재능과 마음은 없는지 장롱이며, 지갑이며, 마음속을 찬찬히 뒤적거려 보아야겠다.

지난밤, 그 박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솜옷을 조금 더 일찍 드렸다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는 겨울이 조금 더 따뜻했을 것인데…. 문상 갔다 돌아오는 길에 몸보다 마음이 몹시 추웠다. G

글 · 유금옥 (시인)



EXPO 2012 YEOSU KOREA

93일간의 꿈꾸는 바다 이야기

##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5여 개국

| | 보통권 | 할인권 | | | | |
|---|---|---|---|---|---|---|
| | | 보통권 다량구매 | 평일 단체권 | 특별권 | 특정일 할인권 | 야간권 |
| 성 인 | 33,000 | 31,000 | 27,000 | 18,000 | 33,000 | 18,000 |
| 청소년 | 25,000 | 17,000 | 23,000 | 14,000 | 25,000 | 14,000 |
| 경로/어린이 | 19,000 | 13,000 | 17,000 | 10,000 | 19,000 | 10,000 |

| | 기간이용권 | | | 특정일권 | |
|---|---|---|---|---|---|
| | 2일권 | 3일권 | 전기간권 | 보통권 | 야간권 |
| 성 인 | 53,000 | 69,000 | 200,000 | 40,000 | 22,000 |
| 청소년 | 40,000 | 53,000 | 150,000 | 30,000 | 17,000 |
| 경로/어린이 | 30,000 | 40,000 | 100,000 | 23,000 | 12,000 |

∘ 미리 예매하시면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까지 5% 할인 혜택)

입장권 구매 (Ticket Purchase)

인터넷 예매 (On-line Reservation)
–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Expo Official Site) : 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On-line Reservation) : www.interpark.com

전화 예매 (Telephone Reservation)
– 1544-1555(인터파크 고객센터)
– 1544-1763(조직위원회 입장권부)

*자세한 내용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To learn more, please visit us at www.expo2012.kr)

EXPO 2012 YEOSU KOREA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아이유